

제416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조폐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통계정보원

상정된 안건

- 업무보고 2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조폐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통계정보원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중 총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 가. 한국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
- 다. 한국조폐공사
- 라. 한국투자공사
- 마. 한국재정정보원
- 바. 한국원산지정보원
- 사. 한국통계정보원

(10시04분)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이상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7개 기관은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사항이나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릴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비롯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중 2.5% 성장할 전망입니다. 물가는 통화정책 진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균형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진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를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운용하면서도 통화진축

장기화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조사연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채병득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채병득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이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채병득 부총재보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채병득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안,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 가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쪽,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렴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취약부문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쪽,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7쪽,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확대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및 대외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최근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구조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ESG 투자 및 국내 금융기관 활용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통계의 지속적 개선, 신규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등 정도 높은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화폐 수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글로벌 금융협력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 경영인사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 및 정책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둔화, 미중 갈등,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자국 중심주의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등 새로운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베풀목인 수출 확대를 위해 다시 한번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수출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은이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전무이사입니다.

황기연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부문별로 나누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수출금융 지원 부문입니다.

올해 수출입은행은 수출산업의 조화로운 육성 및 수출 7000억 불 돌파를 위해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총 5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방산·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수주산업인 건설·플랜트 및 조선업에 대해서도 수주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부문입니다.

수은은 올해에도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3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고통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 소재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금융 격차 완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급망안정화기금 부문입니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수은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은은 동 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원은 정부보증부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올해 발행하는 기금채권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국가보증동의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 주요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인원 7인 중 2인을 국회 기재위 추천으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여기 계신 기재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대외경제협력기금 부문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 기금으로써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수은은 수탁기관으로 사업심사, 계약, 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의 ODA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3년간 13조 8000억 원 및 6조 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국격에 걸맞은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그린·디지털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형 사업 발굴 및 비구속성 비율 확대 등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북협력기금 부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금 운용 주체인 통일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은에서 기금 전반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24년 중 총 8722억 원의 유·무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 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등 인도적 분야 사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사장 성창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공사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감사입니다.

목진관 부사장 겸 기획이사입니다.

유병옥 사업기술이사는 지금 상중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성민 ICT이사입니다.

이한빈 관리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신분증 등 기본사업의 완벽 수행입니다.

공사는 24년에도 화폐 제조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념화폐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고품질의 화폐 제조·공급이라는 고유의 목적사업을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수표 등 보안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여권 발급량 급증에 대응하여 기관 간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차질 없는 여권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개별배송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사업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입니다.

공사는 모바일 신분증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7대 국가신분증의 모바일화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삼성페이 앱,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81개 지자체, 270만 명 가입자에게 제공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또한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중단 네트워크 환경 구축과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통해 ICT 인프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브랜드보호 사업을 통해 가짜 없는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분에서는 화장품, 의료, 식품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한 어구보증금제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암인기술을 활용하여 손흥민, BTS 등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K-컬처 기념메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과 연계한 기념메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펄프, 보안잉크 등 고부가가치 화폐 관련 제품과 모바일 신분증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정부 정책 선도적 이행으로 공기업 역할 완수입니다.

공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원 감축, 자산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직무급을 확대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남녀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성과공유 등으로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해외 보안잉크 시장에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 동반성장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새겨듣고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6억 달러를 위탁받아 올해 5월 말 기준 1959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투자수익 규모는 843억 달러로 설립 이후 4.63%의 누적 연환산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공사는 큰 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및 운용전략 다변화를 통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AI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감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완화 전망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히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도 매우 큰 상황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넓고 긴 안목의 시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공사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철저히 하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역량 고도화, 리스크 관리 강화, 국내 금융산업 글로벌화 지원 및 지속가능투자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식 감사입니다.

이상민 경영관리부문장입니다.

이훈 투자운용부문장입니다.

정호석 투자관리부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 올해 운용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연간 투자수익률은 3.41%이며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6.48%를 기록 중입니다. 전통자산 연간 수익률은 3.72%이며 대체자산의 경우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 7.76%입니다.

8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역량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중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 투자기반을 강화하고 AI 관련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하며 자산배분 전문성 강화,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 및 해외 투자

전문인력 양성, 직접·공동투자 기회 확대 등 내부 운용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10페이지,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 강화입니다.

고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성과 변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셋째, 국내 금융산업 글로벌화 지원 관련입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설립 이후 최초로 글로벌 주식전략부문 외부 운용사로 국내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 확대는 물론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ESG 투자가 위탁자산 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 및 ESG 투자 통합체계 고도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박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주요 정보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기획재정 부문 10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원은 장애나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 없이 국가재정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이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차세대 디브레인 개통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였던 국가행정전산망이나 공공정보시스템 장애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한 공공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수행자 적격성 및 집행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사용 의심 사업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전체 과정을 빈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한 결과 2016년 개원 이후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이 보유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중 단 한 건도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안 부원장입니다.

(인사)

그리면 지금부터 기관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부분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3쪽의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정보 연계 및 시스템 품질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정,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의 정책 변화도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재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정정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 공모단계의 수행 적격성 검증부터 집행단계의 사용 적정성, 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징후 탐지 및 점검까지 보조사업 전 과정을 빈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만 명의 시스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보조금의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쉬운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고객 만족 중심의 사용자 지원 강화입니다.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고객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준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층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여 수요자별 맞춤 콘텐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디브레인 수출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민관협력 등의 채널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완벽한 이행, 높은 수준의 국내외 인증 획득, 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 등으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과 노후장비 적기 교체, 성능 고도화 등 선제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일권**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김일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우리 정부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기업의 효과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FTA·원산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이 인권·환경·IT 등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FTA와 원산지 관련 정보 제공과 대응방안 적기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통상 규범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원이 출연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첫 해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민, 정부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원의 임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원산지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관 FTA총괄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원산지 연구입니다.

금년에 우리 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FTA 활용대상 품목 DB 구축, 원산지 판정 정보 등을 시작화한 FTA BRIEF 등의 발간물 신규 발행,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FTA 통계 지표 개발 등 FTA·원산지 전문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1차산품의 FTA 원산지증명 부담 경감을 위해 원산지증명 간소화 제도,

대상품목 지속 발굴 및 1국 다협정 최적 세율 안내 등 FTA 콘텐츠와 정책정보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약상대국의 FTA양허 훠손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과 주요국의 신통상규제 관련 연구 및 정보 제공 등으로도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FTA 이행 지원을 위한 원산지검증 정보 분석 및 인증수출자 예비조사 수행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른 공급망 변동 등으로 FTA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 정보수집 대상국가 확대, 정보원천의 다각화 노력 등을 통해 관세청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농축수산물과 제3국 우회수입 우려 물품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효과적으로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인증 이후 단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에 대한 자율과 책임에 균형을 유도하고 한국산 상품의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수출입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FTA-PASS 기능을 확대하여 FTA 원산지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원산지증명제도와 신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발효 FTA 등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기능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관리 기능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방문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FTA-PASS의 해외 수출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FTA·원산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FTA·원산지 교육과정 외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특강을 다수 개최하여 시의성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원산지 전문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에 대한 수요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황 조사 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통계정보원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한국통계정보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인수 경영본부장이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계정보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정보원 경영본부장 김인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첫 업

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통계정보원은 국가통계정보서비스의 개발, 진흥을 위해 통계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높은 품질의 통계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 통계청을 주무기관으로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첫선을 봄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품질 높은 데이터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다양한 통계정보서비스 콘텐츠 발굴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활용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 모든 임직원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통계정보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혁진 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정적 통계데이터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료 전 주기에 걸친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통계등록부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한 정확한 기업통계 생산을 지원하여 민간 분야의 기업통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표준화된 통계정책 관리를 통해서는 각 통계작성 기관에 최적화된 통계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민간 및 기업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승인통계데이터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보존·관리하고 이용자의 정확하고 시의성 높은 통계 이용을 위해 통계 설명자료 확충과 품질 점검을 통해 고품질의 통계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 기반의 통계데이터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데이터 안심구역의 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여 통계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원스톱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구축입니다.

중장기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센터와 기술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공공기관 운영체계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과 재무적 환경도 지속

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통계정보시스템의 해외보급 등 사업 영역 다각화와 통계 분야 AI 관련 신기술의 자산화를 통해 조직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통계정보시스템의 해외보급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통계데이터 분야의 AI 신기술 자산화와 통계정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 및 통계작성기관에 보급합니다. 이를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해외 통계청과 우리나라 통계청과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한국통계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순서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인데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보고하신 거나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이 제일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금리.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통화와 금리.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게 금통위 아닙니까? 금통위인데 금통위원들이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최소한 오늘 첫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보면 집행간부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금통위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금통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돼요. 지금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셨지요?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회의라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여튼 위원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어떤 분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금리가 동결됐는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국민들이 관심을 지금 최고로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금통위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2년간 금통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록, 어떤 금통위원분이 금리를 내리자고 했는지 올리자고 그랬는지 동결시키자고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최근 2년간 구체적인 회의록을 점심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장님, 업무보고 자료 5쪽에 지역기업 지원이 있어요. 그것 보면 지역주력산업 해 가지고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시도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정일영 위원 투자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자료 7쪽에 보면 대체자산 수익률 쪽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대체자산. 거기에 보면 해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 5년 것의 내용을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한은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강경 기조로 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밭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만일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단히 혼란스럽지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에서 40조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대출 확대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DSR 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겠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대출 축소지요.

그런데 도입을 불과 엿새 앞두고 두 달 연기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또 일종의 대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 수요가 몰릴 위험성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7월 3일 날 금감원이 17개 부행장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라고 주문합니다. 이것은 또 정부가 개입해서 대출 축소 정책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내리니까 다시 주담대 최저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매수 수요가 2년 8개월 만에 공급을 앞지릅니다.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한국은행의 고금리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예상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텐데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금리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큰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 가지고 2년 동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래도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 옴에 따라서 물가안정에는 도움을 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는 어제 기재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하자고 해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KDI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수 부진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고금리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금리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게 정부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정부 정책하고. 그것을 지적한 건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곤란……

○**김태년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재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정부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긴축정책, 한쪽에서는 감세정책,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적표가 아주 안 좋아요. 성장에 정부 기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98년, 2008년 이 정도의 쇼크는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뇌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재정을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수 평크가 있었어요. 작년에 56조 4000억, 올해도 10조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올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통장에다가 손을 맹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작년에 117조 6000억 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 60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 쇼크 때, 20년 때보다 대출 누계액으로 보면 더 큽니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혼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크 난 재정 메꾸기에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어요. 일시대출금으로 지금 2년째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일시대출금에는 대출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작년 국회에서 말씀 주셨던……

○**김태년 위원** 다시 물을게요.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묻는데……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한국은행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 문서로 남깁니까, 이 협의 내용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매주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남깁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또 기관 대 기관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일시대출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규정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아마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체크하고……

○**김태년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 지금 문서로 남기고 있느냐, 우리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서가 있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가지고 평크 난 재정을 어떻게든 메꾸든지 운용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이를바 마이너스통장, 일시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과다해요.

○**위원장 송언석**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 차이로 인한 캐시 플로가 만일에 63일 이전 짧은 주기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고 만기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이번주 금통위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목요일에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을 국회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좀 무리일 거고.

기본 입장, 원칙적인 기본 입장은 뭡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기본 입장은 최근에 들어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지속을 확인하고 또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금통위원들과 금리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물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총액으로 하면 13조 원, 이 부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재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시경제 학자시잖아요. 학자로서, 중앙은행 총재로서, 물가상승률이 6월에 2.6%, 2% 겨우 잡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3조 원에 이르는 현금이 살포됐을 때, 한국은행이 장기적인 물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물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2.5%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호조적인 테 반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타깃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인 지원,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맞춤형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박대출 위원**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그리고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이를테면 맞춤형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잘못된 갈증 해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것이다, 바닷물을 주는 것이다, 결코…… 갈증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중에 13조 원이라는 대규모 돈이 풀리면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난 정부 시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두 가지가 있었지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가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소비 증대 효과가 0.26에서 0.36이다, 이 말은 100만 원 지원하면 26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가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불과하더라. 나머지는 대출 대환이나 저축 등으로 쓰여지더라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대한경영학회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아서 소비를 미리 앞당기지 그 이외에는 오히려 소비를 줄이더라 그런 행태가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대안으로 한시적 쿠폰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세계에서 그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애플워치

사는 법' 그런 게시글들이 범람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돈들이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이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더라, 한국갤럽의 지난 5월 21~31일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가 51%였다는 것도 아마 이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영향에 대해서 한은 자체에서 연구용역 같은 것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 이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큰 역할이 금리정책이고 물가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는 확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의 가계부채를 죽 연도별로 본다면 이전 정부 5년의 가계부채가 총 504조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이 무려 37.1%예요. 그러나 현 정부 2년 동안에는 19.9조 원, 겨우 1.1%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증가세가 조금 확대된 것은 맞지만 지난 5년과 지난 2년을 비교할 때는 이 증가세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이것은 확인된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총재께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한은 총재 된 이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금융위가 지난 6월 25일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론도 있습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이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어제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달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추진안을 보면서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 연기해서 9월 달에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청문회를 열자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504조 원을 늘려 놓은 책임이 있는 정부가 19.9조 원 늘어난 데 대한, 증가에 대한 문제를 삼는다 이것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불성설이다, 적반하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번 정부에서 저희가 계속 F4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모두 가계부채만큼은 GDP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정책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가계부채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되겠고요.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한은 총재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끄러운 한은도 강조하셨고 계급장 떼고 할 말은 하자 이런 소신도 밝혔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조금 전 김태년 위원께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교란하거나 또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일시대출금 때문에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 8월 말 기준 총 63차례, 113조를 했더라고요. 올해 지금 6월 말 기준 기재부가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8월 말 기준 63차례 했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횟수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특히 다른 때에 비해서 되게 많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누적금액으로 보셔서 그렇고요.

○**박홍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하지만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러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재정……

○**박홍근 위원** 저는 횟수도 말씀드린 거고 전체 누적금액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부가 돈이 많이 있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결국 세수 등에 있어서 차질이, 애초의 추정치나 추계치보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결국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를 어찌 보면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세수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쓰는 것은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일단 세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받는 방안에는, 지금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재정증권으로 할 것이냐 통안증권으로 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예, 압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실제적으로는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 원도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자라고까지 내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문서로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작년에도 그래서 총재께서 방금 그 말씀, ‘연속적으로 계속 정부가 돈을 이렇게 빌려갔을 때 이게 기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도 마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사실 재정증권과 통안증권의 그런 관계 또 이것을 어느 정도 한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실 일입니다. 저희는 그 제도하에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하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 재정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한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거고 또 지금 정부 요청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그런 제도의 상설적 이런 운용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의 경제동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기재부가 그린북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두 달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했다’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반복해요,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어제 KDI 경제동향 보면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총재께서도 지난달에는 ‘내수 부문별로도 체감온도가 상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통계를 봤더니 여전히 내수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간 소비통계인 소매판매액지수 이것도 보면 3개월 연속 역성장입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도 대체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기업 간의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를 봐도 내수기업들의 부정적 전망이 큰 폭으로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간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괜한 장밋빛 전망만 늘어놔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원초에 저희가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을 때에 비해서는 내수도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을 보면 1/4분기에 많이 올라갔고요, 2/4분기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3/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가 돼서 연평균으로는 2.5%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그 기준,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우리 한은이 좀 정확하게 잡아 주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정부와 엇박자 나지 않도록 말씀드린 거고요.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도 답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제나 이런 상황을 봐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미 유럽중앙은행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는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고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고 있던데, 우선 미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전문가나 언론의 분석처럼 9월 달에 인하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오늘 저녁 때 파월 의장의 미국 국회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재는 9월 또는 12월로 시장에서 나누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관계없이 캐나다나 EU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을 고려 않고 선제적으로 그 나라들처럼 이렇게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 보셨던가요, 그 전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면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목요일에 아마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번에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DSR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또 이 기준금리 문제하고 이게 사실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부득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게 향후에 기준금리 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부 정책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을 초안으로 놓고 그것이 물가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금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 금통위 때 ‘물가가 목표 수준 2%대로 확신이 들 때까지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확신은 몇 월 정도로 봐야 됩니까? 2%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2%대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최근에 물가상승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최근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금리 인하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또 여당 정치인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금리 인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 온 이후에 어떠한 의견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스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중요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성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그리고 존경하는 박홍근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일시대출 문제 위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한은 총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은에 일시대출한 금액이 9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보통 일시대출, 정부 입장에서 일시차입인데 지난해나 올해같이 세수가 부족할 때는 일시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요. 그래서 일시대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세수 추계와 재정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일시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쪽은 정부보다 한국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대출이 말 그대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출이기는 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지요,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말씀,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이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정증권을 쓰고 있는데 만일 한국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정증권의 만기를 63일보다 훨씬 앞으로 짧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매년 일시대출 한도와 조건을 정하면서 기초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아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시대출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 달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차규근 위원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 일시차입 평잔이, 물론 아직 재정증권 평잔보다 적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해 기준으로는 높은 건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작년 6월 말 기준 6.7조 원인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7.2조 원이지요. 한국은행에 반복적으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실 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수 여건이 좋았으면 일시차입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논의가 쑥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발행하면 63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재정증권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이자를 내면 되는 일시차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총재님,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 중에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사실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재님,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에서 발행한 14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그때 정부가 하게 했을 때 당시 전철환 총재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유통시장을 통해서 발행하자’라고 정부를 설득했고 결국 처음으로 채권시장의 문이 열렸고 지금과 같이 국채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총재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지금 총재님께서도 이런 과거의 전철환 총재님같이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증권도 만기가 더 짧은 증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또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실제로 아까 총재님께서는 63일물만 말씀하셨는데 최근 정부는 재정증권 28일물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까도 이게 언급이 되었는데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국회에서 정해 달라’, 총재님 이런 말씀 하셨지요?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도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한국은행법 제3조 알고 계시지요, 총재님? 한국은행법 제3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립성 조항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총재님, 작년 말씀 한국은행법 3조 중립성 조항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차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고, 이 재정증권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통안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증권의 만기를 통안증권처럼 짧게 하게 되면 2개의 시장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진 한에서는 통안증권을 통해서 단기를 조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제가 질의한 취지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총재님께서 과거 전철환 총재님같이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기재위 국감에서 위규 대출 사례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위규 대출이 된 사유로 가장 많은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폐업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저희가 받는 데 시간이 걸

리는데 그런 데서 좀 차질이 있던 케이스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대출 제한 업종에 대해서 대출한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원래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은이 일반 은행들에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소기업이 아닌 대출 제한 업종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저희 목표 수준에, 2%에 근접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물가 경로가 전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대체적으로 부합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지 않을 거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까지…… 이 문제는 이번에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근 나온 숫자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찾아보니까요 수출은 굉장히 호황입니다마는 내수의 더딘 회복세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이 큰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만에 1년 만이고요. 또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만 하더라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고금리의 영향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가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당연히 고금리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부 투자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내수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된 그런 면도 있어서 참 불가피한 초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소득자 또 취약계층,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의 1분기 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이 2009년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연체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3개월 만에 2조 4000억이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연체율 역시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고금리 속에 부채가 늘면서 취약층의 연체율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자영업자 도산을 3대 위험요인으로 지목을 한 바 있습니다.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는데요. 채무 체조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정책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부적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오늘 총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나와 계신 조폐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 은행권 발행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해외 주요국들이 현행권을 교체하는 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일본은 20년 주기로 지금 도안 바꾸고 있고요. 미국은 한 10년, EU는 한 14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해외 주요국의 현행권 교체 주기가 약 12~13년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새로운 3종의 도안을 채택하고 내놓았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반면에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2006년에 5000원권, 2007년에 1만 원 및 1000원, 2009년에 5만 원권을 발행해서 현재 15~18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5만 원권 6374장을 위조해서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적 위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컬러 프린트 기술이 위낙 좋아지다 보니까 정교하게 가짜 5만 원권을 복사해서 SNS를 통해 10대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최근 발생된 위폐 사건은 SNS와 같은 새로운 경로로 빠르게 확산되고 전문적으로 조직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위폐 제조 및 유통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위조방지장치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폐 발생도 굉장히 고도화·전문화돼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기술은 한 20년 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도화할 그런 필요성은 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위원** 사장님,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최근에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1위가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이순신 장군이 연속해서 계속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100원권 주화의 인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화폐 도안 변경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새 은행권 발행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폐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결정은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결정이 되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사실 우리 화폐의 도안을 바꾸는 문제는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구권과 같이 사용이 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나 각국이 화폐 도안을 바꾸는 변경 주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권종별 평균 교체 주기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많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예, 감사합니다.

○ **박성훈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질의를 잘 받지 않는 조폐공사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대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국은행은 어쨌든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신영대 위원** 실제 정부로부터 금리에 대해서 미리 언질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 **신영대 위원** 독립적으로 통화위원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신영대 위원** 여전히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관련된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게 물가상승에…… 저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 조사 기능이, 역량이 가장 좋으니까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것은 기관마다, 정부 관련 기관들마다 또는 교부단체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좀 연구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화폐를 가장 활발하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한 지역이 군산시인데, 제 지역구가 전북 군산인데요. 전북 군산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중단하고 지엠이 철수하면서 고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위기지역이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어요.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중앙 언론보도는 공단에 들개가 돌아다닌다 이런 정도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의 선례가 있지만 대대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 군산세무서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 매출 증대에 기여했는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가가 조사에 다 나와요, 데이터가 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민생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모두 다, 여야 공히 동의하는 바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역화폐를 발행해 전 국민 지원금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 못 하면 선별 지원도 좋다’ 여기까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물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전 지역별로, 그리고 실제 지역마다 할인율이 다 다릅니다.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이 어떤 데는 8%, 어떤 데는 4%, 다 달라요. 이 할인율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걸 좀 논쟁을……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시니까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지역화폐는 사실 재정지출과 같은 겁니다. 이게 화폐라고 불리지만 바우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지출의 효과와 같은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이 어려울 때 결국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역상품권도 결국은 재정을 투입한 거고 이 재정 투입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재정 투입의 결과들이, 내용들이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이것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올해 5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이 810건이고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에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도 지난해보다 현재 1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니까 지난 7월 3일 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관한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과 연관돼서 한국은행에서 요즘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신영대 위원** 당연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목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 금리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현재 몇 %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지 아세요, 시중에서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 이건 저희가 직접 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대출할 때 보조를 주고 그런 게……

○**신영대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지원금 2%로 동일하게 제공하면 이걸 가지고서 시중은행들이 운용하는 건데, 물론 전체 무역금융 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는

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전체 금액 중에서 제일 비중이 낮기는 해요.

그런데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 4%……

○**신영대 위원** 8.37~9.95%입니다. 당연히 이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담보라 할지 어떤 회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높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높습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은행과 수시로 시중은행들이 협의하고 그려잖아요. 당연히 전산프로그램이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사실 이 금리로도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면이 있어서 이걸 낮출 경우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대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도 지역에서 중소기업들, 기업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면 가장 큰 게 대출금리입니다. 이 정도만 좀 지원해 주면 우리가 버텨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고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떨어져서 회사가 퇴출될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 경기랄지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특히나 대출금리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대출들이 시중은행의, 우리 정부가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시중은행들의 이익으로만 귀결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이익이 났다고 그런 것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은행들이.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한국은행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평판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결과가 또 금년 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보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성 부족이 전문가나 국민이나 모두 지금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총재님 취임 이후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낮다는 평가가 취임 전보다, 기대와는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더 나빠진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런 평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이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안도걸 위원** 한번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요,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 기간 당시 국회의원후보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민원이지요. 그래야만이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이 용이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민원을 전달하셨고, 이때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지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중심 목표로 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금리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압력이 매우 크고 그게 항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차트 보시지요.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앞다퉈서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라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은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간섭이다라는 지적이 좀 있지요.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이제 총재께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통화·금리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지켜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재님의 소신과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아마 제 임기가 끝날 때, 이전 총재님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만남을 줄이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6월 달에 결정이 있었고, 동결 결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장래 금리 전망을 좀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게 아마 시장의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면적인 관세 부과 등으로 해 가지고 수입인플레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 다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격차가 2%p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이 여차하면 지금 1400을 돌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요인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금 유출, 이에 따른 환율의 상승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리고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도 다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유류 세도 일부 다시 환원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가 요인에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시중금리지요. 시중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기 이전인 22년 6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담대 금리가 낮은 경우 지금 2%에 진입해 있고 지난 6월 달에 외국인 투자, 장을 보니까 우리 채권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연저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시장 그리고 가계대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의 불안 요인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선불리 금리를 인하할 경우 그 실익보다 경제적 부작용이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통화정책 이게 운신의 폭이 좀 더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님 견해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금통위원들과 내일 회의하고 목요일 할 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시장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질 그럴 여지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게 되면 금통위 결정 방향에 시사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실제 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시점뿐만 아니라 폭이 더 클 것이라는 발표가 나면 좀 떨어지지만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정도로 금리가 인하할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도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장금리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총재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 대한 평판 또 총재님에 대한 평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세수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논의할 때 결국은 추경을 하거나 또 적자국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다가

일시차입금을 가져온다고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인선 위원** 그러다 보니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서 일시대출금은 정부가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또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지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이인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시차입금 누계액을 인용해서 보면 정부가 올해도 벌써 일시차입금이 100조가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숫자만 보면 굉장히 돈을 마음대로 쓰고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차입 평잔은 6조 원을 하회하고 평균 차입 일수도 14.7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재님이 일반적으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재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총재님이 보시기에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또 총재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일시차입금 제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의 의미는,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재정증권으로 할 것인지 통안증권으로 할 것인지가 우리나라의 관건인데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통안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일 경우에는 통안증권을 쓰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인 면이 있는, 양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듣기 쉽게, 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금리 인하를 하실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몇 % 할 건가 이런 걸 묻고 싶었는데 아마 그건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는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그때 다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오늘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님 나오셨지요?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일권** 예.

○**이인선 위원** 올해부터 출연기관으로 첫 보고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책임과 의무도 많아지시는 거지요.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일권**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어쨌든 기업들의 가장 많은 질의나 현안이 뭔지를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 해외 통관 애로가 151건인데 이 중에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민원이 75%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해외 수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산지 증명이

라는 게 CPTPP나 GVC나 나라마다 다를 지금 다르고, 원산지가 김치 하나를 보더라도 각각이 50%를 넘지 않으면 자국 게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이 접수가 돼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원산지정보원장이 어떤…… 원장님한테 직접 못 물어봤지만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답변은 관세청이나 부처가 주는 위탁사업만 수행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이 길을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한 업무를 보는 기관이면 출연기관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보내 봤어요. 보내 보니까 이 질문지에 딱 간단하게…… 그냥 4번, 5번 질문은 ‘관세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소관이니까 동 기관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오면……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와서 보고 하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태도로 기업들한테 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도와야 되는 기관으로 잘했다고 보고 지금 출연기관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태도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75%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뭔가를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FTA 민원에 대한 유형화 및 DB를 작성해서 제공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 와서 보라’는 뜻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다 세금을 쓰고 있고 그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런 75%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다시 한번 좀 분류를 하시고, 간단하게 그냥 ‘관세청이나 기재부의 소관 업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원산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력 양성도 지금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정말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연기관이 됐기 때문에 칭찬 겸 내부를 지금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오늘 총재님께 가계부채, 부동산 PF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년 위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일시차입금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기재부 사이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결정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후에 별도로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으면 기록을 공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먼저 가계부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은행에서 만든 금융안정보고서나 각종 보고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들을 해서 제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논쟁할 때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에 기반해서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작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이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달인가요, 뭐 제안을 하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제안드린 것 중에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니까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라고 돼 있어서 약간 톤 다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상황을 과거보다 좀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유의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다음 페이지, 제가 화면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경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설명은 이런 거지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외형적으로 한쪽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락가락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서……

어제도 매경이나 서울신문 사설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말 이후에 15주 연속 올랐는데 평균 거래가가 5월 기준으로 해서 12억이다’, ‘미친 집값이었다고 했던 3년 전보다 1억 이상 웃돌고 있다’, ‘말로는 가계대출 비상이라면서 여러 가지로 대출 수요를 더 부추겼다’.

오늘 또 다른 한 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현재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2%대까지 떨어져서 영끌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7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말로는 가계부채 잘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대출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신호는 좌로 해 놓고 우회전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논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최근에 스트레스 DSR 두 달 연기한 것, 여러 가지 변명이 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잘한 겁니까? 정부가 그걸 잘 연기한 겁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에 대출을 더 해 주겠다는 메시지인데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 잘하겠다라고 해 놓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 놓고 실제는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어제 부총리께서 아마 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일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갈팡질팡하는 게 비판받아야 될 행태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정부와 얘기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총재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를 목표해서 하향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것은 저희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교를 해 보면 한 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빨리 되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무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게 문제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십여 년 이상의 긴 호흡에서 보면 정부가 일관되게 했느냐에 대한 비판을 저는 계속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적했던 건 과연 목표를 갖고 가고 있는가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는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해서 실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DSR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이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존경하는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컨트롤을 거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성장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 가는 것이 큰 스텝이고 지금부터 완만하게 하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약간 이 수치에 대한 설명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GDP 대비해서 90% 초반까지 간다라는 것 중에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모에 있어서 숫자의 어떤 걸 제외하는 것에서 최근 22년, 23년 동안에 한 2% 정도 다운된 게 있었고, 최근 5년 동안의 지표가 한꺼번에 바뀌는 최근 그 결과는 모집단이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GDP 계산 방식이 바뀌니까 된 것이고.

그래서 일관되게 정부가, 정책으로 바뀐 거냐? 그게 아니라 5년 단위로 GDP 계산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00% 조금 넘는 숫자에서 지금 92%까지 떨어진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GDP 개편일 때의 영향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GDP 대비 레벨은 천천히지만 내려오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그래서 방향 전환까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최근 한 3~4개월 동안의 변화가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식으로 오해가 되고 또 비판받는 상황이라서 DSR에 대한 예외를 좀 가질 필요 없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최근에 금융감독원의 다른 액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처럼 전세대출까지 포함해서 DSR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까의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매크로프루덴셜(macroprudential)이라고 하는 거시 안정성 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물가와 관련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기조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물가를 잡았다.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 겁니까?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 금통위원들과 이번 2.4%가 갖는 의미를 내일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도 이게 일시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물가 중에서도 특히나 식료품 같은 경우에 지금 계절적으로 매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물가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환율 아닙니까? 지금 달러당 원화가 1400원을 육박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한은은 이것이 또 이를 테

면 계속 1400원 정도의 선을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1400원 선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환율에 관한 문제가 저희 통화정책의 중요한 요인인데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호중 위원** 역시 판단을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2년 넘게지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지금 2% 낮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기 이전 환율을 고려하면, 역전되기 이전에는 한 1100원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8년, 19년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역전이 돼서 우리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2% 낮은 상황, 상대적으로 저금리다…… 3.5%를 저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0%대니까요. 저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금리가 우리 물가에 미친 영향도 있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환율과 수입가격 이런 데 미친 영향 때문에 물가를 밀어 올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러나 금리 결정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아까 9월 또는 12월 설 엇갈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개 정치적인 이유까지 더해서 12월 설이 오히려 더 힘을 얻어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한미 간의 금리차를 더 넓히는 것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 그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물가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환율을 올릴 수도 없고 이를테면 역으로……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없지요, 환율을 잡겠다고. 그렇다고 낮출 수도 없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정책 수단을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선택할 만한 선택지가 좁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짜여져야 될 텐데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발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정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금리는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만 그 효과와, 재정정책의 효과나 협조 관계는 매우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통화정책이 정책 수단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그럴 때에는 재정정책이 그 공백을 메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재정이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이렇게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높은 금리 때문에 취약차주라든가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통화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내수를 충족시키 주기 위한 그런 재정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총재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를테면 재정정책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한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이 훨씬 더 보편적이지요. 그런데 금융통화정책이 보편적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재정도 그런 보편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체적인 성장률은 2.5%고 그다음에 GDP 캡으로 봐서는 저희가 리세션(recession)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아니라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 다시 말하면 전통 유통업이나 외식업 같은 이런 곳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골목상권 아닙니까? 이런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에게 찾아온 것은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전에 10년 이 넘는 양적완화가 있었지요. 그게 코로나까지 겹쳐서 찾아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미국에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는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동조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저희의 기본 숙명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는 화폐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성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기후퇴를 유도하는 그것이 또 저희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후퇴할 때는 경기하강의 속도와 양상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경착륙과 연착륙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경착륙일 때는 연쇄적인 유동성 축소와 함께 상당한 연쇄적인 파산과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종합해 볼 때 미국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금리 인상 이후의 경기후퇴 과정을 연착륙으로 관리해 온 것이 지난 2년간의 거시경제 조합의 성과라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나 특별한 금융안정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착륙으로 가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연착륙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은 총재께 짧지 않은 토론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2년 동안 겪었던 일, 지금 현재도 걸어가고 있는 이 국면은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그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면서 동시에 유동성 축소로 인한 연쇄 파산을 막아야 하는 이중의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기재부장관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2년 동안 정부가 이 엄중한 과정을 관리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은 총재님 말씀대로. 이런 연쇄적인 파장 속에서 저희가 겪어야 하는 일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시겠지만 소상공인의 문제, 골목상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현상에 대한 안내 속에, 물론 한국은행은 말을 아껴야 하는 기본 숙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잘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경기 침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것이고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정책 당국들의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민 위원** 동시에 저희가 이런 거시정책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미시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이 거시 압력을 해소하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 본 위원은 정말 높게 평가드립니다. 저출산, 수도권 집중의 문제 또 가사도우미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다뤄 주시고 계셔서 저는 너무

너무 훌륭한 균형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그중의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택입니다. 이미 인지하다시피 물가에 엄청난 체감적인 파급을 주는 것이 주택이고, 대한민국 주택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급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두 번의 수요 억제를 통한 교란으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기왕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실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주택가격은 GDP 성장, 1인당 국민소득의 함수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고 이자는 좀 낮아지게 돼 있는 것이 기본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교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큰 얘기일 수 있는데요. 25년 전에 고정환율제 속에서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외환위기를 맞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외환보유고가 잘 축적이 됐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부분을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지금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의미가 고정환율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약간의 균형감을 가져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성 국채를 중심으로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보유 자산에 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전략적인 자산 배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상황이 바뀌면 기대수익률이 자산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적정 통화 비중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고정환율제의 외환보유고와 변동환율제의 외환보유고는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무래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게 되면 외환보유고를 가져야 되는 양 자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변동환율제로 이동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변동환율제를 당연히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정 통화별 구성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다 하셨습니까?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창용 총재님,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 괜찮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구성 면이나 위험성으로 봐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더 들어날 경우에는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사실 저도 보니까 가계부채 전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12.4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 혹시 한국은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게 지금 양날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서민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가격을 올리면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고리도 있기 때문에 양쪽 면에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의 두 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우리 경제 당국이 부동산 경착륙을 유발할 수는 없다라는 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건전성 지표를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한국은행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위기 요인으로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부분이 대표적일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나 우리 기준금리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빠져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 대출잔액은 5.5조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게 평가되지만 연체율이 17.28%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잔액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고려하실 때 우리 부동산 PF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년 반 전에 비해서 저는 그동안의 정책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연착륙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고,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되면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저도 보다 보니까, 금감원의 여러 증권사의 연체율이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별로, 은행·증권별로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지만 사실 개별 회사의 위험도나 연체율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한 금융회사의 위기가 사실 굉장히 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나 실리콘밸리은행이라든지, 우리도 레고랜드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동양증권 사태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요즘 금융감독 업무가 주로 금감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공동검사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도 정도까지는 한은에서 보통 은행 16개사, 증권사는 한 3개사 정도씩으로 계속 공동검사를 해 오셨는데 2022년 이후에 보면 공동검사를 수행한 사례가 확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들이 꽤 보이는데, 지금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거시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공동검사를 축소하신 것은 직무를 조금 소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공동검사 나간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천하람 위원** 제가 보니까 2023년에 은행 9개사, 증권 1개사 이렇게 나가셨네요. 2022년에도 동일한데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이유나 이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마 저희가 작년에 더 관심을 뒀던 것은 은행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비은행금융기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정보를 수시로 받으면서 하는 것은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교환과 협력은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비은행예금기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MOU를 한 부분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금감원, 금융위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학술적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만 사실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굉장히 강한 기관이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좀 휩쓸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저축은행을 굉장히 이렇게 하다 보니 저축은행 부실도 있었던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 때도 사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거치면서 그것이 금융권 감독을 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총재께서는 과거에 초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 지금은 또 한은 총재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 같은 사실상 단임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굉장히 강한 이런 기관들이 지금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는 사실 어느 한 모델이 좋다는 견해는 없고요. 우리나라로도 여러 시스템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주로 감독을 하다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최근에 영란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이라는 것이 은행으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검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수출입은행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올해 3월에 15조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했지 않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김영진 위원 그때 왜 상향했지요? 상당히 요청이 많았잖아요. 이것 안 하면 대한민국 수출길이 막힌다, 막 엄청난 압박을 얘기하셨는데 증액 이유,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21대 때 주로 방산 수출 쪽에서 수출입은행 여신 한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서 그것이 저희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데 동력이 됐던 건 사실인데 저희는 그때도, 그 법정자본금을 늘릴 때에도 저희 자본금이 늘어나면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나 혁신성장, 우리가 지원하는 산업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해당 시기에 여러 가지 요구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진 형태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증액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이후 방산 수출 자체가 예정됐던 바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가 방산 수출이 1차 계약은 되고 2차가 더 큰 금액이 있었는데 그 2차 계약……

○김영진 위원 행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그 흐름과 방향에 대한 분석과 판단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금 증액을 해서, 법까지 개정해서 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수출입은행이 정확한 입장을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2024년 계획을 보면 8722억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전년도는 총액이 224억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계획서예요. 이것 어떤 계획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남북관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언제든지 남북 경색 국면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그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행장님이 분석하신 바대로 자본금 증액도 그렇고 이 남북교류 협력기금 계획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222억, 전전년도에 700억 정도인데 8700억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하셨듯이 지금 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정책과 계획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페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

밖에 더 보이겠어요? 좀 현실화시켜서 계획을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 분야는 제가 남북협력기금 주무부서인 통일부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현재 통일부는 교류협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결과 대결 이상의 것을 원하는 통일부이기 때문에 교류협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에 간담회에 총재께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략 중요한 두 가지지요.

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왔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독립적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김영진 위원** 평가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독립적인 입장이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총재로서 정부의 총괄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총재의 견해는 어여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가에 관한 한 지난 2년 동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안정화를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전에 얘기했듯이 총재께서도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대략 100조, 그 정도 되는데.

총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한도와 방향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진 위원**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한도와 방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시대출의 한도는 지금 국회에서 매년 의결받게 돼 있는데요.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또 너무 크면 대출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은 규정에 맞게 일시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법률안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매년 의결받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총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국은행 차입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경우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의 문제를 사실은 그런 것으로 면피하는 형태로 한국은행 차입 문제를 계속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 거지요.

경제성장률과 정부 성장기여도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총재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계경제가 그렇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 미중 간의 충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에서 세계경제가 비슷했지요. 우리나라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형태로 왔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2022, 2023년을 보면, 특히 2023년을 보면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정 추계보다도 엄청나게, 2% 이상을 추계했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진 1.4%로 마감을 했고 그런데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3%밖에 기여하지 못했어요. 즉 한마디로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을 이끌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법인세, 소득세의 감세를 통해서 전체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국은행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재님 생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적절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재정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면에서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장은 좀 약화됐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을 늘리지 않아서 물가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가라는 측면은 전 세계가 비슷한 형태의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 그 속에서도 결론은 저성장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분들이 서민과 자영업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없던 상황이지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총재님?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가를 잡는 데 기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취약계층의 문제는 재정에 타깃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들이고요. 금리 문제라든가 또 일시차입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총재께서 일관되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기는 하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지만 한은은 또 한은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겠다 이 입장을 계속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역대 어느 총재분 못지않게 저는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임기가 2026년도 4월까지인가요? 4년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025년 4월.....

○**정성호 위원** 25년도까지 되네요. 3년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4년입니다.

○**정성호 위원** 임기가 4년이지요? 2022년도에 취임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까지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죄송합니다.

○**정성호 위원** 저는 지금 우리 한은이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토끼 두 마리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아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내수가 지금 침체돼 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또 선제적으로 한은이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정치권이라든가 또는 정부 안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그러나 또 반대로 금리에 관련해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지금 최근에 스트레스 DSR 2개월 연장한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늘었어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또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강한데 또 이런 데 대한 문제점도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모든 문제가 그렇게 서로 상호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정말 총재가 혼들리지 않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관련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일시차입금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일시차입금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연초에 부대조건 만들면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관련된 부대조건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이것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 여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대개 선거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꽤 되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도 굉장히 압박하고 정부도 나서서 압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개 이럴 때 일시차입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총선 전이나 그 직전 해 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시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지, 이게 기조적인 현상이 되고 더군다나 선거 앞두고서, 선거 전후 해 가지고 직전쯤부터 일시차입금이 증가해 가지고 재정 집행 강화하는 건 바른 현상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시차입금 상환은 국회에서 정해 주지만 사실 일시차입금

을 갖다가, 대출을 정부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한은이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재량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은이, 진짜 이것 이면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돈 좀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요.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차입금 갖고 집행했다고 해도, 정부가 상고하자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요. 한은이 낸 통계를 보면 실제 정부의 돈 집행이民間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느냐?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효과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은에서 총재가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의 요청도 듣고 얘기도 듣고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2026년도 말이 퇴임 직전인데 그때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계속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좀 당부드리고 유념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 한은에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정부 일시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차환기간이라든지 차입일수라든지 계속 논의하고 그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또 관련해 가지고서 한은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게, 한은의 기본적인 정책이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 관리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경제조사연구가 있는데.

사실 기재부의 주요 업무가,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및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하는 게 기재부의 주 핵심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재부 상황을 보면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연구 준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제 받은 기재부의 업무보고 때도 전체, 이게 딱 한 줄 저 뒤에 보면 잠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어제도 기재부장관한테 그 점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가장 큰 지구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모든 분이 다 동의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계신 분이나 저출산 또는 저출생 문제가 가장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 대책 안 세우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5월 달에 느닷없이 인구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언하고서 그다음에 인구전략기획부라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말 우리 저출생·저출산 대책이 아예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책임이 없어진 거예요.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돼 가지고서 부처에 여러 가지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올해 다 갈 거예요. 내년 가면 3년 차, 4년 차 되고 그다음에 5년 차 가는데 아무것도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다가 예산의 사전 배분·조정 기능 까지 부여한다고 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다 손 놓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면. 왜냐?

인구전략기획부로 다 넘어갈 거니까, 그 가능이.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한은에서 이것 관련 중장기과제 연구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또 지역불균형 문제 또는 기후리스크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총재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한은이 정말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기본 토대를 튼튼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총재께서 이런 점에 관련해 가지고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싱크탱크로서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위원** 정말 심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안에서 말로만 저출산·저출생 대책을 얘기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 만들면서 정부조직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올해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새로 부 만들어져 가지고 역할 가겠습니까? 예산 배분 기능 준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에서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할 만한 데가, 연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기관은 한은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부처 안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좀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재위에서 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한은 입장에서는 일시대출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차입은 세입세출 간의 일시적인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용 수단입니다. 세수가 남을 때는 여유자금 운용하고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을 하는 거지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 말까지는 조세수입 등으로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 일시적인 대책입니다.

일시차입 소요는 매년 들쭉날쭉합니다. 세수 진도 그리고 정부의 조기집행, 지출 차이에 따르다 보니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큰 변수는 결국 세수결손 규모, 조기집행 목표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등 일시적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느냐 이게 큰 변수입니다.

이처럼 일시차입은 어느 정권 문제가 아니고 세수와 집행 간의 격차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2020년 코로나 지원금 등 코로나 추경 소요 등으로 그때도 일시차입 소요를, 97조 원을 일시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재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17조 원을 일시차입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차입금 규모에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계액입니다. 며칠 빌리고 갚고 하는 소요를 단순 반복하는 행위를 합산한 누계치고 작년 같은 경우 실제 차입 평잔은 4.4조 원 그리고 평균 차입일수는 14.2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일시차입 제도가 과연 나쁜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일반 가계에서도 마이너스통장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 등 일시 부족자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통화량 유발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장함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통화량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일시, 마이너스통장인데요. 마이너스통장의 규모에 관해서는 장점·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갈 경우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돼서 재정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무 클 경우에는 구조적인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처럼 논란이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증권이 아닌 일시차입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일시차입이 월말이나 분기 말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출 소요는 월말, 분기 말에 몰려 있는 반면에 수입은 마지막 날짜, 31일·30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일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런 수일간의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일시차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재정증권 같은 경우에는 63일물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안증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 재정증권은 63일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리면 63일 동안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행히 금년 7월부터는 한은과의 협의를 통해 28일물 재정증권을 1조 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재정증권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정증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화가 되어야 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증권을 추가 발행했을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시차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그러면 정부가 일시차입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32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정증권과 일시차입을 합한 총한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통합계정 한도 40조, 공자기금 8조, 양특 2조 포함해서 총 50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부는 재정증권과 일시차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재정증권을 일시차입에 우선해서 자금 조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 자체 없이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감사원 감사라든지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금리도 통안증권 91일물에 10bp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해 놔서 조달비용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재정증권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차입은 앞서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공문으로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이자를 사후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은이 금통위 의결로 재정증권 평잔 내로 관리한다는 부대조건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금년 6월 말 평잔 기준으로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저희가 평잔으로는, 6월 말 차입 일수가 한 16일 정도 되고 평잔은 한 7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종욱 위원** 제가 기재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재정증권 평잔은 11.1조고 한은 차입은 7.2조입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의결한 재정증권 평잔 내로 관리한다는 부대조건은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차입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도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일영 위원님하고 최기상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 정일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시작할 때 드렸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금통위 의사록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인정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또 금리가,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경기 진작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은…… 그러니까 시중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금리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 보니까 이를 뒤에 금통위가 열리면 그때 결정된다 고……

그런데 벌써 시중에는 소문이 뭐라고 나 있는지 들어 보셨어요, 혹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겁니다, 동결. 지금 이게 죽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통위가, 금통위 멤버들이 너무 중요한데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좀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전부, 거의 다 익명 처리예요, 익명 처리. 금통위 멤버들이 연봉을 보니까 무려, 한은 총재님은 많이 받으실 자격 있어요, 3억 8000인가 되는데 금통위원 이분들은 3억 5000만 원, 파월 미 연준 의장 연봉 2억 6000만 원보다도 거의 1 억 원 이상을 더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민간 사기업도 보면 이사들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체 이사회, 사외이사까지도 문제가 있을 때는 배임을 묻는다든지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금통위원들이, 책임은 떠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비판을 받든지 방어를 하든지 오픈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익명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뉴스에 총재님 나오셔 가지고 ‘금리 동결됩니다’ ‘올립니다’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책임감 있는 금통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실명으로, 금통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내리겠다고 했는지 올리겠다고 했는지 그 근거는 뭔지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명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언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금통위 의결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금통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 같은 것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보면 미국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여기 보면 조윤제 위원님인가 그분은 성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공개를 해서, 완전히 정말 중요한,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공개를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또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사항인 금리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면 숨기는 것보다는 오픈하는 게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어요? 오픈해 가지고 토론 못 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분이. 하여튼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보면, 물가안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총재님께서 취임, 청문회 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총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IMF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금리에 관해서는 총재님, 그때 후보님이 너무 잘 아실 거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 못 하시지요? 우리 한국경제의

민생경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빼저리게 고생하시는 것 모르실 거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좀 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물가는 다른 위원님도 했으니까 소비자물가 이런 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리고.

그다음 PPT 보면 산업, 경제가 다 어렵다는 것 아시고. 그렇지요? 새삼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취약차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이것도 한은 총재님이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총재님이시니까, 금리라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계부채 이것도 보시면 계속 늘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외국도 그렇지만 금리가 부동산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닳아 가고 있고. 그래서 한은의 금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만큼 또……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은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 보면 주담대 금리 계속 하락하고 심상치 않은 집값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재님이 하반기에 금리 결정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 세울 때 취약계층하고 부동산, 집값 문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전에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집값이 내려가 가지고 집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많이 완화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폭등하기 시작했거든. 나라 전체가 어려웠어요.

지금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총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집값 이런 걱정이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도록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들이 분명히 금주에 많은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금리가 동결되고 또 여러 가지 갈팡질팡은 하지만, 미국 금리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미 금리 차가 한 2%p 정도 나고 이런 것이 결국 무슨 영향을 주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한 1400원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이게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것이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되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외환보유고까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고 우리 금리가 떨어지면서 외환보유고도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일영 위원**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은 외환보유고……

○**정일영 위원**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미국하고 금리 차이는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금리를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조금만 하시면 되지요.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환에 대한 이런 문제보다는 하여간 금리를……

제 생각에는 이를 뒤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회의 끝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우리나라 최고 법규법은 헌법입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우리나라 헌법에 한국은행 나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

○**최기상 위원** 없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중앙은행, 혹시 은행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단어 없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헌법에는 금융, 통화 이런 단어도 안 나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 사법권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법관 이른바 이런 기관들이 헌법기관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헌법기관 아닙니다. 그냥 정책 실현을 구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이 헌법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 공개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판결문 다 공개합니다. 국회, 지금 우리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왜 금통위

회의록 본인들 마음대로 비공개로 대부분 결정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다소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헌법 조항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보시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민주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최기상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법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목적, 물가안정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는 공공성·투명성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균형 있는 국민경제,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민주화 이런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충실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증명을 하셔야지요, 국민들 앞에. 뭘 보고 저희가 믿어야 되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가장 간단하게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물가안정화는 성과가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오늘 인사말씀이나 업무현황에 불평등·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성장이 내수와 수출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저희가, 한국은행이 계속 밝혀 왔습니다.

○**최기상 위원** 오늘 업무현황 보고나 인사에 불평등·양극화의 현황, 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뭘 했고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피해 가시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마 저희가 통화정책에 집중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국민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불평등 심화 아닌가요. 어때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양극화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기상 위원** 한국은행은 관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책임…… 싱크탱

크로서 그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저출산 관련한 성장·양극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총재님, 저희 국민들 총재님 말씀만 듣고 믿기에는 너무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증거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내부 상의 좀 해보세요.

2021년에 세계은행이 발간한 조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었다고 지적 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융정책으로 정부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하도록 유도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 시켰는데 이 결과 부자들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협상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국제기구에 계속 있었지만 그 견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견해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견해가 있긴 있는데 다수의 견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저이자율 정책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정책을 통해서 세계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총재님, 한국은행이 금리를 비롯한 각종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 국민입니까? 어떻게 저희는 보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전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기상 위원**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당연직 총재, 부총재 아니면 기재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의미가 뭡니까? 추천하는 사람들 이해관계 대변하라는 취지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최기상 위원** 이 사람들 말고 대한민국에 금융에 전문성 있는 사람 아주 많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추천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그런데 또 추천하고 나서 총재님 빼고는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동의 없잖아요.

선진국에, 미국·EU·영국 등 이런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 떠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의 중앙은행장들이……

○**최기상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21대 국회 때도 서병수 의원님이 인사청문회 하는 법률안 낸 거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말씀 들었습니다.

○**최기상 위원**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들 재산 상태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발표 기준 봤더니 평균 재산이 54억 원이세요. 부동산 건물 보유자, 전부이시고 금융자산도 2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대부분이 관료나 교수시던데, 저도 법관 생활 20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재산이 많으실까요? 공무원하고 교수님이면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은 그러면 평소에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 증권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일용 볼 수 있겠지요.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총재님도 재산 꽤 되지 않나요? 평균보다 많으세요, 적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평균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조금 적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고지거부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정도시면 자녀들, 친척, 동료,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국민들은 보세요. 그러면 평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증권 투자를 많이 한 분들, 관심도 많았던 분들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까 의문이 든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전문가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믿어 달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재산이 많다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축적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전에 오늘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일시대출, 일시차입금, 마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한국은행이 독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수 관련 사항이 필요하고 판단된다면 국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거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또 한국은행법 77조에 보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한국은행에서 판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총재님,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구자근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한국은행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고 또 많은 기업들과 경영인들 또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구자근 위원** 총재님 이하 우리 관계 부처 또 직원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국수출입은행장님 혹시, 나와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구자근 위원** 은행장님,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작년 기준으로 한 18%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수출입은행에서 2005년부터 수출팩토링 제도라고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진흥공단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기업들의 채권 미상환 우려라든가 자금 회전 문제 등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큰 사업으로 업계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의 반응들은?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말씀하신 대로 반응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들은 이 팩토링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중소기업들이 수출 거래에서 지위가 열위에 있고 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팩토링금융 취급을 위한 필수조건 충족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해 보고 싶은 문제인데, 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중을 보니까 대기업이……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중견기업까지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대기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자근 위원** 중견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중견기업도……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많은 페센티지를……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중견기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중견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인데…… 지난 5년 동안 13조 4500억 금융 지원했는데 중소기업이 단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0.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보면 1.28, 한 1.3% 정도 되는데 불과 2년 사이에 0.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면 전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자금 상품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희도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왜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못 쓰는지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수입자들의 채권양도 통지·승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잘 받아내지 못하고, 둘째는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저희가 최근에 디지털 공급망 팩토링이라고 해서 서류도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려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근 위원** 서류 부분이 많아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 미흡하다는 부분 이거는 정부 측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지원이면 당연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유리하겠지요, 인력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중소기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금융 당국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중소기업들이 이 팩토링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연결해서 바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장님, 지금 감사가 공석이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지난 1월 24일 날 임기 만료한 후에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공석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전체 임원은 몇 명이지요?

○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희 전체 인원은 사외이사 포함해서 7명입니다.

○ **구자근 위원** 의결 조건에는 이상 없는 겁니까?

○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의결정족수에는…… 감사는 의견만 말할 수 있지 그 정족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 **구자근 위원** 지금 금액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총자산이 120억 원에 달하는데 감사직이 이렇게 오래 비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기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타 금융기관들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후임자 여부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만두게 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구자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개정할 테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감사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이사회의 사외이사까지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적시에 교체 임명이, 세 분이 임명이 안 되면 이사회 정족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에 있는 황명선 위원입니다.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2년 4월 21일 취임하셨지요?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황명선 위원** 취임사 내용 한번 PPT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사 내용입니다. ‘가계와 정부 부채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 한국은행의 총재로서 지금도 아주 관심이 지대하시지요?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 **황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다시 아주 깊게 되짚어 봐야 될 시기라고 봐집니다. 한국은행에서 2021년도 8월 달에는 기준금리 0.5%, 23년도 1월 달에는 3.5% 인상이 됐는데 그 이후 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고금리는 지금 지속 중입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한 3% 아래로 그리고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고.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완만한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긴축정책, 가계·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상승,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최근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가계대출 연체율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22년도, 23년도 지나면서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더 큰 문제는 한 번 연체에 진입한 사람들은 연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연체지속률도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을 이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행들, 중소기업 연체 대출잔액이 2년 새 3345억 원에서 8719억으로 161%나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권 지역에서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마트들도 있습니다.

3월에 스위스 중앙은행과 6월 달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요.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9월 또는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금리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이 상존한다고 봐집니다. 한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나 부동산 상승의 요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폐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 연체율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재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고민과 또 반대로는 물가와 부동산 이런 데 대한 부작용을 저희가 내일 회의를 통해서 금통위원회와 상의하고 목요일 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내일이에요, 모례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내일이 저희 내부 회의고요.

○**황명선 위원** 금융통화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고 목요일 날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을 최종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황명선 위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재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다음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한국투자공사는 몇 년도에 출범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2005년도에 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이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황명선 위원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해외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황명선 위원 지난 2024년도 5월 말 기준 누적 투자수익 840억 달러, 한화로 얘기하면 한 100조 원 정도 되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황명선 위원 총 운용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지금 2000억 불 내외입니다.

○황명선 위원 2000억 불이면 한 250조?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황명선 위원 지금 현재 전 세계 국부펀드 가운데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국부펀드 운용자산의 규모 순위는 14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맞습니다.

○황명선 위원 하지만 10위권 내의 국부펀드들과 규모로 보면,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GDP는 우리 한국이 3배가 넘지만 국부펀드는 20%도 안 되는 한 17%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계적인 국부펀드들과의 경쟁, 특히 규모의 경제 면에서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자산 규모가 커지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협상력이 제고가 되고……

○황명선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2022년도에 기재부의 위탁금이 거의 끊긴 상태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황명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기재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외환 수급의 상황을 봐서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15초……

지난해 56조의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재정 투입이, 위탁금이 끊긴 가장, 이유 중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왜 얘기 못 합니까? 아무튼 신규 위탁이 끊겨서 적기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개선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저희들이 기재부와 또 여기 총재님 계시지만 한국은행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외환 수급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법률 개정이나 정부 정책 등 모든 영역의 계획과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이창용 총재님, 가계부채 관리가 지금 당면한 중요한 정책 과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임광현 위원**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다, 그래서 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 대응을 펼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금년 3월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임광현 위원** 예, 맞습니다. 한 2318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3.5%로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의 가계에는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자영업자도 포함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 1000조 정도 되는.....

○**임광현 위원** 예, 맞습니다, 한 1056조. 금융안정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한 353조 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 703조 원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가계로서의 대출과 개인사업자로서의 대출을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임광현 위원** 이렇게 볼 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가 2318조 원이고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 원이라고 볼 때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의 약 46%,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임광현 위원**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 대출이 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주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다 맞고요. 저는 다른 쪽은 부동산 투자

를 위해서 개인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도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위한 부채와 부동산 투자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자영업자 중에 개인사업자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겁니다.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라고 본다면 저는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가계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가계는 지금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계도 많이……

○**임광현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가계와 달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료도 내야 하고 인건비도 내야 하고 또 새 장비도 사야 하고 재료도 사야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를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은 업무보고에 보면 ‘가계대출 관리 목표가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재님께서는 약 80%까지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중장기적으로……

○**임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낮추려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큰 우리 경제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무리하게 축소하고자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파산, 경기침체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연체율도 지금 크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임광현 위원** 벌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따라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축소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자영업자 부채가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총재님,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계부채라는 것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에는 금융안정에 주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되지 않도록, 자영업 말고 다른 취업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는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자금이나 이런 게 회전이 안 되면 바로 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 자영업자 부채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단순히 어떤 GDP 대비 비율 목표를 타깃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영세자영업자 연장선상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자금의 규모가 2018년도에는 11조 원에서 올해는 3000억 원으로 이렇게, 한도가 3000억 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정률도 굉장히 낮은데 한국은행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안정화 자금을 좀 더 확대하고 배정률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유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융중개대출이 코로나 때, 우리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줄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논의하는 건데 금중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을 대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애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재정정책과의 어떤 독립으로 갈지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양을 많이 늘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동구에서 온 최은석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 너무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서, 저도 또 질문드려야 될 건데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하실 때 우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셨는데 이 부분에, 결국 앞으로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노동 투입이 감소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 중이고 그래서 결국 한국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지금 총재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성의 개선 속도는 좀 어떤지 그리고 생산성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한 총재님의 고견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최 위원님, 저야 경제학을 여러 번 했지만 사실 경제학자들이 원인을 잘 모를 때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 외에 성장을 가져오는 걸 생산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는 정말 매직박스 같아 가지고요. 지금 여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걸 하면 성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인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국내 경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최근 1/4분기 성장률이 좀 더 좋게 나오고 또 수출도 반등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실제 시장을 돌아보면 여전히 체감경기는 좋지 않고 또 최근 5월 달 관련된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총재님께서 올해 2.5% 성장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2분기가 일부 좀 주춤하지만 3분기 이후로는 개선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월 달 산업활동동향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로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낙관하고 계신 어떤 근거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수출이 지금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는 주춤하고 있고 그래서요.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가 내수가 부진해서인데, 수출은 지난달에 경상수지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2.5%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상방 압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또 금리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에서 조금 확장해서 환율 쪽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전체 경제주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관련해서 혹시 금리가 인하되면 환율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먼저 인하하게 되면 환율이 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시장의 일부 시각이 있는데 총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가 아마 내일 저희 회의나 모례 금통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고 저희가 적의히 판단해서 통화정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가 미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일 간의 수출 경쟁력의 차이로 보면 엔화가 이렇게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관련해서 원화의 추가 절하 이런 데 대한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현재 엔화의 절하 압력이 국제금융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산업구조 면에서 경쟁도 있고 여행객 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인 경쟁력 면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겪은 이후로, 학설에 의한 건 아니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외환시장이 너무 센서티브해서요

이걸 별도로…… 확대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금통위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예, 그러면 따로 한번 제가 총재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환보유고가 세 달 연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이 혹시 우리나라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KIC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같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어젠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2년에 한 번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걸 수립하신 적이 있나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저희가 2012년 이후 2017년에 또 수립을 했습니다, 2035년 까지 중장기계획을.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중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2017년에 수립한 게 지금 현재 달성을 어떻게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지금 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수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 비전하고 우리 KIC가 정말 경쟁력 있는 글로벌 국부펀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위탁자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공공기금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래 발전 전략,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국부펀드로서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을 즈음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중장기계획을 가다듬을 그럴 계획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부펀드의 비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총재님 그리고 공공기관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고 또 위기 이후에 그것을 잘 추스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재님,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코로나 당시에 일명 헬리콥터 머니라는…… 얼마 지급한지 아세요, 1인당?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잘……

○김영환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20년 4월에 1200불 그다음에 20년 12월에 600불—1인당입니다—21년 3월에 1400불, 도합 3200불. 1400원 기준으로 1인당 45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한대의 양적완화, 통화 유동성을 공급했지요.

기억하시지요,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총재님도 한국은행에서 되게 바빴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국민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족 총 합쳐서 100만 원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지요? 2000만 원씩 한 가족에 준 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유럽 국가들도 다 그랬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통화량 한번 보면, M2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4월 기준이지요. M2 평잔이 지금 4000조를 넘었어요. 그런데 M2 보시면 통화량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올라갔을까요, 통화량이 계속? 우리 기준금리 올리면서 통화량을 잡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에 혹시 금통위 회의록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적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그때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했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했고요 전매 제한 완화했고요 주택 소유자 청약도 허용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했고요 종부세 완화했고 양도세 완화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 관련된 완화 조치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우려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면을 같이 고려했어야 됐습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는 한편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때였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M2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조세지출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올해 국가채무가 70조가 늘어납니다. 적자국채는 이제 다 메워야 될 거고요,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PF 시장이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현재 134조다, 196조다…… 그런데 엊그저께 기재부가 얼마 발표했습니까, 보증 지원을? 94조 원 추가로 발표했지요. 그러면 시장에 앞으로 통화량은 늘어날 일만 또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화량의 어떤 통제력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하지만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통화량……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타깃하고 있는데요. 통화량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요인 외에 금융기관 간에 예금이 움직이면 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금리를 보면서 긴축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2% 후반대 주담대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것이 더……

○**김영환 위원**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몇 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PPI는 없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있어요. 근원물가도 2.0%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3.0%입니다.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3.9%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되게 지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 저는 이거는 통화정책으로 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총재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이 민심의 투표들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제학자로서 한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김영환 위원** 그게 또 한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해라, 부자 감세하지 말고 국정 철학의 대전환을 좀 이루어라 이런 요구와 민심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 문제인데요. 이게 역으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원화 약세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시장 강해요, 아직.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내일모레 또 CPI 발표하지요? 우리나라의 CPI는 주거비 웨이트(weight)가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30% 되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덜 반영돼 있다, 물가에 대해서, CPI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화 약세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수입물가가 높아지지요, 더. 그렇지요? 그게 CPI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PPI, CPI로 또 역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제대로 풀어야 될 것과 통화정책으로 제대로 풀어야 할 것을 저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환율 이런 것들이 저희 큰 고려사항이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서울시 강서을의 진성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고 크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진성준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에 갇혀서 경제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그에 따른 어떤 가계부담을 가계가 대출을 통해서 메꿔 왔다, 그래서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50% 수준인 데 반해서 우리 가계부채의 비중은 거의 100%에 이르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또 재난적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부지출 또 재정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총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50년간 부동산의 자금 불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크다고 보고 있고요. 부채 문제로 보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채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주요 큰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많아서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그 가계부채는 아까 임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절반 정도의 규모는 자영업자의 부채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양으로 봐서는 한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역시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걸 재정으로 보완해 줄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GDP가 2.5% 성장하고 GDP 캡이라고 부르는 그 양이 작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총량은 크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 생각

하고요. 다만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타깃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전례 없는 고금리 상황으로 우리 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보고 있고 또 사실상의 초과이윤을 누린 상황이어서 지난해부터 정부도 그렇고 은행들이 거두고 있는 이런 초과이윤을 시스템적으로 좀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초과이윤, 이자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는 중앙은행…… 예를 들어 금융위·금감원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코멘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재세 논의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진성준 위원 그렇게 횡재세가 됐든 또는 서민금융지원 기금에 대한 출연이 됐든 은행의 기여금을 법제도적으로 확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서민금융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만일에 의무적으로 이걸 시키기보다는 은행이 초과이윤이 생기면 그것을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서민금융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의 0.03%—시행령에 의해서—현재 매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 하나당 매년 한 1000억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이게 2026년에는 일몰될 예정인데 예정대로 일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제도적으로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지요.

제가 보도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때때로 연구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3월 달에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또 KDI하고 함께 세미나도 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 최저임금법, 외국인고용법과 같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ILO,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협약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뉴스에도 많이…… 신문에도 제가 보고서는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가사도우미를 개인, 사적 계약을 통해서 데려올 경우에는 최저임금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개인이 계약해서 데려올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뜻이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거나, 만일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그냥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런 두 안을 저희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시는 거군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진성준 위원** 그것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되고 가사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더 낮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의외입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 저는 일부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지금 최저임금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을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자영업자를 무슨 사업자로 보시는데 노동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노동을 들여서 일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한국은행 등 7개의 기관 기관장님들하고 임직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 총재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우리 물가에 관련해서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게 잘 관리되어 온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팬데믹이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외생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면)

각국 물가상승률인데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3.6으로 나와 있는 저게 지금 우리나라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경쟁국들하고 OECD 평균입니다. 각국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물가 관리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총재님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면, 최근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연속 2%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고 있다, 물가 관리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저희 같은 의원들은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민들의 경우에는 물가가 아직도 너무 비싸다,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니까 생활물가 상승이 아주 심하다 하는 게 50.4%, 심하다고 하는 게 32.4%, 합해서 82.8%, 80% 넘는 사람들이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안정이 민생경제 중에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하는 부분도 5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격차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제가 궁금한 거지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잡히고 있다, 국제 비교도 좋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현재 물가상승률이 타깃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인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은 다른데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필품에 관한 물가가 굉장히 높은 그걸 계속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박수영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소비자물가, 균원물가, 생활물가를 비교해 놨는데 정부가, 기재부가 인용을 계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보다 생활물가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소비자물가는 총재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458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 비중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물가는 144개 품목이지만 식료품이 84개,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의미가 있는데, 품목별 물가 그래프거든요. 이것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의류·신발—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거지요—식료품 그리고 주거비, 우리나라 집값 비싼 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 최근의 저것을 보면 딱 의식주예요. 즉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들, 의류 식료품 그리고 주거비 이게 비싸다는 걸 우리가 품목별 통계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몇 가지 아이템을 정부가 잘 잡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비 이것 위 집 빨리 지어 낼 수는 없으니까 잡기는 어렵지만 식료품, 의류·신발 이런 건 좀 잡아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중에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사과가 지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6월도 전년동월 비해서 60% 이상 지금 비싸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재

배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유통구조 개선은 수십 년 된 묵은 숙제인데 우리가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배 면적 확대도,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과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의 사과 원산지가 일본의 아오모리, 그게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의 위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을 무작정 확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농림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구 전통시장에 갔더니 4개에 1만 원 하던 게 지금 1개에 8000원 하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통계청의 통계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농림부는 이제 햇사과가 8월 말부터 출하되기 시작하면 사과값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8월 사이에 아주 짧은 기간인데 이때 오히려 재배 면적 논의하고 유통구조 개선 논의할 게 아니라 수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수입을 해서 이런 짧은 시간에라도 사과를 좀 공급했더라면 사과 가격,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생필품 중에 식료품 가격들은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솔루션은 없고요. 저희가 사과 수입을 개방하면 당연히 생산자인 농민들은 어려워질 테지만 또 농민 보호만 생각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의식주가 문제고, 특히 일부 품목은 수입이 전량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입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물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은 그와 동시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저희가 다른 방면에서 보호를 하더라도 소비자의 이해도 반영을 해서 이런 물가 관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3만 5000명 정도가 사과 생산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피해는 다른 방식으로 보조를 하더라도 이것 개방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재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하여튼 물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사과 가격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제일 높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OECD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사과 가격이 대한민국이 제일 비싼 것은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농산물은 수급이 예측되잖아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미리 세워 놓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사과 가격이 세계 1위일 정도의 이 물가 수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상승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상승 원인은 올해는 기후가 나빠져서 사과 산출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내 산출이 줄 때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변동 폭을 줄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사과와 배는 100%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줄 때 사과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준비해 본 자료에는 ‘주요 신선식품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이것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과일·채소인데 이렇게 비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로 내놨잖아요. ‘BOK 이슈 노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해서 6월 18일 날 발간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재미나더라고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이 한 16% 되는데 실제로 과일이나 채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 가격이 OECD 평균 대비 1.5배가 된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는 잡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시한 것은 구조적으로 재배 면적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올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일부 해서 공급 선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가격 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화정책으로 이것을……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 물가를 잡아야, 사과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통화정책으로도 불가능하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세계 1위 가격의 사과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금리를 통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은 구조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와 같이 다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방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이 보고서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 가격의 사과를 계속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계속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사과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6월 18일 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6월 19일 날 농림부장관이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장관 표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 데이터로 하면 우리나라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열아홉 번째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52~53%가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가가 과대 추정됐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또 재반박을 하셨지요?

누구 말이 옳은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농림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잘 보고 있고요,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는 당연히 생산자인 농민을 생각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의식주 가격이 우리가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정부 안에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왜 하느냐하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가지고 발표해 놨는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국민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 가격의 사과를 먹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그 사과를 계속 먹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농림부장관은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무슨 정부예요? 어떤 회의 테이블도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정태호 위원** 저도 잠깐 청와대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담당 수석이 관계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부 부처하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연구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담당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입장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부와 구체적인 얘기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태호 위원** 하여튼 정부 안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인 분석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당연히 대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정부 안에서 입장 조율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국민들만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은 총재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서 해 주시면 들기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오전 질의 마지막에 부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이 있고 많고, 그러니까 무슨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닌데요. 우리 사회의 상위 1%,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과 상위 90, 하위에 속한 분들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통화정책을 행사하는 데 본인의 비중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너무 지나쳐요.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으로 소비자, 자영업자,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양대 노총에서도 충분한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영업자 기구, 소비자 기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추천위원회 제도,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이 구성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사를 20년 했고요, 법조경력 25년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급여 액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재선 의원이 돼서 받는 급여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금융통화위원들 급여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나요, 금융통화위원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현재 금통위에 오신 분들 중에는 바깥, 민간 섹터에서 훨

씬 더 많은 임금을, 월급을 받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회의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최기상 위원** 법관들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급여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 시대의 지혜 있는 자들은 소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국회의원, 판사, 검사, 금융통화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불평등, 양극화, 미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위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국회의원들은 24시간 내내 국민과 접촉하고 평가받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권위가 나오고요.

판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삼심제에서 나오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항소심, 상고심에서 교정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판결 나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잖아요, 판사 공격도 당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힘이 거기서 나와요.

금융통화위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통화정책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하느냐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최기상 위원** 좋습니다.

얼마나 잘하셨는지 평가는 누가 해야 되냐고요? 그동안에 한국은행 총재님, 부총재님, 금융통화위원회들이 통화정책 잘못했다고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거나 민형사상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민형사 책임은 없지만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많은 비난을 받아 온 것은 사실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중간에 그만둔 분 있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만두지는 않지요. 독립성이……

○**최기상 위원**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그동안 일이 아주 잘됐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가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잘한 때도 있고 부족했던 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요새는 판사, 검사들도 엄청난 책임에 시달리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책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들은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으시면서 그만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총재님을 말씀, 논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자율 결정할 때 금통위원회들과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금통위원회들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총재님, 6월 12일 자 기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은 저출생, 노인 빈곤, 소득·자산 불평등 등 누증되고 심화되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까지 확대

돼야 된다는 취지셨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미 저희가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최 위원님, 저희가 논의했던 물가 수준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하나씩하나씩 의견 있을 경우에 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업무 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얘기 법에 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임성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금융통화위원들 책임 안 지시고 꽂보직, 좋은 자리다 소문이 파다하고 언론에서 늘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셔서 앞으로 국정감사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오늘 일시대출금에 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시대출금 문제는 어쨌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좋은 제도고, 다만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시스템에 따라서 잘 관리가 되어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확보가 되는 가운데 운용이 되면 이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잔액 기준에 따라서 봐야지 누진, 누계에 따라서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이게 무슨 도박판의 판돈 계산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2020년대, 20년과 지금 올해를 비교해 보면요. 2020년—지난 문 정부 때지요—102조, 100조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전체 102조 9000억 원.

그리고 잔액 기준으로 본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봐야겠지요.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같이 비교를 해 봐야겠지요. 2020년에는 21.2조, 올해는 19.9조. 2020년보다 훨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점으로 이것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가 지금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시대출금은 관리되는 지침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된다는 것,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자체 없이 상환해야 된다는 것.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일단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잠깐 짚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은은 한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농림부는 농림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혼선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래서 한은법 제4조를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법 4조가 정부정책과의 조화거든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독립성은 유지되면서, 독립성이 유지된다 고 그래서 독립성이 다른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런 조화가 돼야 되고 하나 된 목소리에서, 국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잣대에서 한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고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다. 이를테면 물가 수준의 기준이 다르다든지 개방도를 볼 때는 농림부는 수출과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한은은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차이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데 그 입장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하자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나 그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 했을 때는 간단히 협의체라도 구성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아니면 국무조정실 같은 데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처끼리도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하나된, 조화된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유의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한은이 되겠다’. 절처럼 조용한 한은사가 아니라 시끄러운 한은이 되겠다는데 무슨 장터처럼 한은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수은 행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국회에서 수은이 석탄화력발전 금융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고 그래서 16년 후 2040년도에는 여신까지 제로를 만드는 계획을 보여 주셨더라고요. 그건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신이기 때문에 좀 더 단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달리 길이 없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요. 다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금융이나 국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매년 수은이 12조씩 그래서 7년간 87조를 탄소배출 감축 기업 그리고 녹색기술사업 투자와 여신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한 것을 저도 자료로 봤습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후공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수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도 함께 커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쟁점이 세 가지 아닙니까, 기후공시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시행 연도, 두 번째는 의무화 여부, 세 번째는 스코프(scope) 3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늦춰야 한다,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해야 된다, 스코프 3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빼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스코프 3까지 포함시켜서 의무화시키고 있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박홍근 위원** 그래서 국내 기준에서는 제외하더라도 결국 수출기업들은 당연히 내년부터 이런 스코프 3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산은하고 기은하고 달리 수은은 현재 스코프 3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공시하지 않았던 신보가 하는 건 알지요, 이제? 그 얘기 들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박홍근 위원** 올해 처음으로 스코프 3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신보마저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수출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줄 텐데 그러면 수은이 당연히 스코프 3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공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수은도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스코프 3의 기준에 맞춰서 고객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한번 추정은 해 봤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국내 스코프 3 포함해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의무화하는 시기는 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계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이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고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스코프 3 감축을 위해서 탄소저감기업이라든지 친환경 사업을 하는 데는 금리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급격하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아직도 에너지에 있어서 LNG나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아니, 화석연료와 관련해서는 아까 연차를, 16년 후까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내부 기준을 2023년도, 작년에 이미 마련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좀 더 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도인데요. 저희가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신뢰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박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기업들, 특히 규제 대응을 혼자 하기 버거운 중소기업·중견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스코프 3 측정에 대한 컨설팅과 같은 것도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 열어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서 비금융 서비스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위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추진계획 자료를 보면 거기에 미래의 지속성장동력 발굴을 첫 번째로 밝히고 있고 이 전략 추진을 위해서 조직 거점으로 인도 러그바이에 사무소를 개소했잖아요? 그만큼 인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계획과 달리 개소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투자 전문인력 1명 구하지를 못했다며요, 배치 못 했다며요. TF가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 와서 올해 4월에 개소를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애초부터 인력 채용 계획은 당연히 준비를 하면서 개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게 저희가 TF 구성한 이후에 인도 정부하고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사무소 설립한 이후에 사모주식에 1명, 부동산 인프라에 1명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하고 평판 조회하고 면접을 거치면 8월 말까지는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위원** 국감 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한은 총재님, 주질의에 있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마지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이 제도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총재님 기억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과거 금리로 되어 있는 거요?

○**차규근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차규근 위원** 총액한도대출,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총액한도대출, 예.

○**차규근 위원** 과거 한국은행 총재이셨던 박승 총재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는 없어야 하는 제도라고 표현하셨는데 혹시 그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국은행의 원래 제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박승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운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제도가 운용되는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규정 위반 대출, 위규대출이 최근 5년간 1270억이고 상당수가 허위 보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위규대출 사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다 강력한 한도 감축액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총재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계속 노력을, 위규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위규대출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한도 감축 등 제재 수단도 지금 더 확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너무 강하게 하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작년 국감 때도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분기만 해도 벌써 170억 정도의 위규대출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다음에 총재님,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영업시간 중에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그런데 올해 외은 지점의 일중당좌대출을 보니까 대출금액이 급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금액만 두고 보더라도 최근 5년 새 약 3배 정도 금액이 상승했는데요. 혹시 총재님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파악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외은 지점은 지준을 국내 은행보다 덜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어떤 이유에서 됐는지 저희 시장팀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희가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국은행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HSBC 그리고 중국은행(BOC)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또 이 두 은행의 공통점이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로부터 은행권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담보 내에서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외은 지점에서 일중당좌대출이 급상승하게 된 원인을 좀 더 한국은행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의 대출 위험성은 없는지,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 건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한은이 담보 내에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이 필요한데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없애고 금융기관 자기자본 25%를 초과할 경우에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외은 지점의 돈놀이를 막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를 하는 건데 현재 한은의 대출 이율에 따르면 지금 현재 0원이지요, 부과되는 수수료 불이익 그것이?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지금은 0원입니다.

그렇다면 도입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출이자와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왜 이게 들어났는지,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시간이 벌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오늘 한은 일시차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한은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재정증권을 우선적으로 발행을 하고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공개시장조작 수단인 통안채를 구축하는 등 통화정책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재정증권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결국 단기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것인지 재정증권을 발행할 것인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책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봐서 선택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원칙적으로는 만기 63일 이하에서 돈을 갚을 수 있으면 한국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성훈 위원** 제가 2020년도에 대정부 일시대출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한은 일시차입 규모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02조 9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은으로부터 정부가 일시차입하게 되면 이율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예산이 되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박성훈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결국 통안채 일평균 유통수익률의 bp를 얹어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글로벌 고금리로 인한 영향이 2020년도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님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당시 이자율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성훈 위원** 결국 정부 정책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조합과 균형 그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최근에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법안도 발의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발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고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을 수도 내에 남기고 어떤 기관을 이전하는 게 좋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장으로서 제 입장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외정책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외정책금융이라서 수출금융 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이나 남북기금 또 통일부에 수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외교, 금융외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교부하고 통일부도 지금 수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네트워크인데 저희는 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라든지 국제기구, 글로벌 IB 등 네트워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수도에 있는 거랑 제2의 도시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만 모든 업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굉장히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조선 업무 같은 일은 이미 저희가 2014년에 부

산으로 이전해서 해양금융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은행의 해양금융센터는 여의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부산에 가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단순히 지방 이전이라는 획일적인 논리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박성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쩔 때는 대출 확대적 정책, 어쩔 때는 대출 축소적 정책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를 관리해야 되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부동산 가격 및 대출,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태년 위원** 부동산 가격도 금리 결정하는 데 요인이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고려사항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고려사항이 되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명확하게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분명한 입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만 해 버리면 한국은행의 위상, 위치 이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정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일시차입금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서로 하고 있던가요, 그냥 구두로만 하던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오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일 저희 시장팀이 기재부팀과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 논의를 하는데 그냥 구두로 하던가요, 아니면 문서로 하던가요? 그리고 남겨 놓던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구두로 논의를 하고 실제로 자금이 대출되거나 상환되면 그것은 공문서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 문서는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주고받은 문서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지출하고 상환했을 때……

○**김태년 위원** 총재께서 보시기에 일시차입 이게 규정상 보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아예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부가 활용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응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한도로 주신 50조 한도 안에서, 정부가 예산 할 때 통과시킨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부가 조건들 같은 것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을 너무 쉽게 쉽게 열어 버리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느슨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총재께서는 꾸준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해 오셨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걱정도 했고 또 이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가 위축 심해서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정책 대응 제대로 못 하면 아주 비관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바도 있고요.

저성장 국면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대책이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담긴 정책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손본다거나 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 않았나 이런 게 하나가 들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지금 미국도 청정경쟁법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울 계획이잖아요. 대만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기후위기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E100에 대한 대응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저출산도 그렇고 또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구조개혁도 그렇고 우리가 저성장 장기 지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제대로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로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인구구조 변화,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산업구조 변화, 특히 클라이밋 체인지(climate change)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의 안도걸입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KIC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 위탁 자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 국부펀드 자산 운용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요즘 들어서 미래혁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들어 볼게요. 사우디 국부펀드 PIF지요. 게임·e스포츠 글로벌 허브로 사우디를 만들겠다라는 목표하에서 닌텐도, EA, 넥슨 등 글로벌 게임사 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일본 국부펀드도 반도체 공급망을 자체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핵심 소재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빨 빠르게 대응은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15년에 국내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 등 할 때 KIC가 같이 동반 투자를 하는 목적 등으로 해 가지고 위탁 자금 50억 달러를 기회재정부에서 아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운용이 되지 않고 10년째 방치가 됐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네요. 최근 들어 가지고 움직임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동안 이 소중한 돈의 방치가 일어났던 원인이 뭐고 현재 바삐 움직이고 있는 조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건의 공동투자 제안을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사와 국내 기업 간의 이해상충 등의 이슈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기 때문에 재무적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라는 그런 어떤 목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투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올해 3월에 별도로 전략투자팀을 신설을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고 투자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기업이나 또는 운용사가 첨단이나 신수종 사업 분야의 어떤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M&A나 지분투자 같은 투자를, 전략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기존 투자 절차와 프로세스를 별도로 마련했고요.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으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지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죽 일관을 했고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해서 만약에 유망한 투자를 한 5~6년 전에라도 했다라고 하면 벌써 지금 5~6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성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시작한 만큼

좀 박차를 가해서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KIC가 대표적인 유일한 국부펀드지요. 국민의 소중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높은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그런데 2021년부터 보니까 조금 저조하지요? 물론 금년 들어서 약간 나아졌습니다. 비교 기준을 보면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경우에는 52bp 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왜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통자산 투자 중에서 저희들이 외국 운용사에 맡기는 간접투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해외 자산사 있지요,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나쁘다라고 하면 즉각즉각 평가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자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한은 총재님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바람 쐬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갔다 오셔서 얼굴이 아주 창백한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이인선 위원 총재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저는 수출입은행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1대 때 여야 합의로 산자위에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공급망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론칭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14개 부처에서 각각 사업공고를 받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처 주관으로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마 8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역의 존도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70%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 34, 미국 20, 일본 25에 비하면 아주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에서는 공급망

교란에 굉장히 취약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그야말로 무방비로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수산화리튬이나 전구체, 희토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높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개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갈 95%를 차지하는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이런 것들을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2021년도에 화학비료 업계에서 큰 이변이 났던, 요소수 대란으로 직격탄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산화리튬이나 수산화리튬 대중 수입액이 2019년에 비해서 18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2021년도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공급망법을 통과시켰고요.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3국에 우회 생산을 하거나 자국 내 자체 조달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이 중국하고는 무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 의존도가 위낙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공급망 관련해서 경제공급망기획관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과업을 맡으셨는데 정말 이건 국운이 달린 문제라고 보시고 예측도 많이 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정책 금융보다는 지분투자를 하거나 지금 해외 광산 같은 데도 투자를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회에서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통과돼서 5조 원 한도 내에서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최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금년에 5조 원까지 받았고요. 아마 수요가 늘어나면 내년에, 저희가 국회에 앞으로 4분기 중에 논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증 규모에 대해서.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미, 이왕 변화에 따라서 맡았으니까요 기재부하고 산자부하고 잘 논의해서 주체 기관으로서 제대로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 공급망 다변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이뤄 냈으면 싶은 마음에서 수출입은행장님 책임감 가지시고요.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나 수출 대란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측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가계부채, 오후에 부동산 PF 이야기했는데 가계부채 중에 아까 논의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취약차주나 다중채무자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재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DSR, GDP 대비 80%까지는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개별적 수단으로서의 DSR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일관되게 갔으면 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부동산 PF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동산 PF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NICE 신용평가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신용평가회사들, 민간에서 낸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관련 저축은행에서의 적립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연체율 보니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1.3%, 증권사가 약 1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할 수준인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 NICE 평가보고서 보면 되게 위기감이 느껴지고 정부의 한국은행 보고서 보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뉘앙스 차이로 느껴지고.

다음 보시면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잠재 부실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주어는 금융회사와 건설사지만 실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적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언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작년 말쯤 부동산 PF 적시 정리를 하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질서 있는 연착륙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거지요, 정부는. 정부는 왜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후 기재부나 다른, 계속 저희가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정확한 부동산 PF 규모가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5월 달 자료에는 한 230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 말까지도 금융감독원은 한 135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랑 토론을 하면 그 당시에 한 200조 이야기했습니다. 수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에 대한 인식이나 데이터들을 정부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저는 1년 내내 금융감독원한테 자료 달라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못 줬고, 간접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民間에서 오히려 많은 보고서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연체율이 나오는데, 새마을금고 연체율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오기형 위원**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금감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까지 다른 데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오기형 위원** 아니면 별도로라도 국회랑 정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감원에서 시차를 가지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련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 파악의 근거가 되는 팩트 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평가해 보니까 별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는 관리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는데, 실제 관리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손실률도 보고요 또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상시대출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2금융권, 비금융 예금취급기관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안정계정 이런 이야기하는 예보의 주장도 있지만 이것을 그러면 한국은행이 대출 형태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개선으로 해서 풀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를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아직 감독권이라든지 자료요청권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관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이 혹시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총재님, 우리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준기축통화국으로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 자유화가 필요한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보다도, 굉장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쟁 중이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윤호중 위원** 오늘 그것을 다 여쭤볼 생각은 아니고요.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한국은행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게 계속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환 당국이라고 돼 있는데, 국민연금과 22년부터 3년째 외환스와프 계약을 하고 있지요? 계속 규모가 늘어서 22년도에는 100억 불 또 23년도에는 350억 불이었고 올해 7월에 500억 불까지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헤지도 하고 있어서 1410원 고정환율로 환헤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동의한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스와프 레이트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환헤지를 할 필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서로 상의하에 스와프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것이 시중에서는 혹시 외환 당국이, 달리 얘기하면 한은일 수 있는데요. 한은이 외환 관리를 위해서, 환율 관리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끌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외환스와프나 환헤지를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스와프의 당사자가 스와프의 피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위험 관리도 좋고 스와프 레이트에 있어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랑 하는 것이 거액을 할 때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스와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헤지 같은 경우에는 위낙 고환율로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은 국민연금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스와프가 일어난 시점을 보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때 제 생각으로는 국민연금이 하락할 가능성성이 더 많다고 판단할 때만 자발적으로 헤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기금의 고갈 우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외환시장까지도 국민연금에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호중 위원** 조폐공사 사장님, 간단한 건데요. 일회용컵에 붙이는 바코드 사업을 시작한 적 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전국 시행을 하기로 해서 라벨 약 20억 장 공급을 겨냥하고 해당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발주량은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75억가량의 투자금이나 잔금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폐공사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22년 당초 환경부는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점에 관해 가지고 22년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COSMO라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발주를 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6개월 유예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전국에서 하는 것을 선도기업, 선도도시, 세종과 제주에만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는 바람이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호중 위원** 사실상 전국 시행이 지금 무산된 거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지금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7월 4일 날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윤호중 위원**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일입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환경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데 COSMO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OSMO하고 저희하고 협력업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 먼저 배경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박수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동 투입만 갖고는 경제를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지요?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 **박수민 위원** 그렇다면 자본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맞는지요?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 **박수민 위원** 그러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목적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두 가지입니다. 국부의 보존 및 증대 그다음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입니다.

○ **박수민 위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전체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돈이 더 일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최첨병의 투자 산업이 있습니다. 투자 산업을 통해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더해서 중산층에게 전달되고 노령층에게 전달될 때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병에 투자공사가 있는데요, 설립 이후에 누적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연금이 있는데 누적수익률을 알고 계시는지요?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캐나다 CPPIB는 저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기관입니다.

○ **박수민 위원** 10%입니다, 누적투자수익률이.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 **박수민 위원**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의 포트폴리오는 한국투자공사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수익률은 국부를 늘리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설립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지금 사장님의 귀책이라든지 현재 임직원들의 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인재 유치 그다음에 투자 인력들의 인센티브, 감사, 평가, 보상체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같이 다루어져야 한국투자공사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원론에서, 모든 부분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기본 목적은 금융산업 발전 이전에 국부의 증대이고 국부의 증대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투자수익률에서 전 세계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근원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수민 위원** 외부 평가까지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서…… 저는 한국인이 캐나다인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금융인재들이 캐나다 금융인재보다 공부를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떨어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백지에서 모든 것을 그려서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수민 위원** 이어서 수출입은행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돈이 더 일을 해야 나라가 안전해지고 국민 삶이 안전해집니다. 핵심이 자본의 수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상품 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본도 함께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수출입은행의 그동안 발전 과정을 보면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기업들의 금융을 백업하는 형태로 기본 임무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유럽개발은행에 재직하면서 자본을 수출하는 기관이 실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오히려 창출해 줄 수 있다 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금융 쪽이나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들이 찾아와서 대출해 주거나 용자를 해 달라는 수동적 포지션을 넘어서 프로젝트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팀 코리아로서 반드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저희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우리 기업들한테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나라들의 주요 발주처를 상대로 해서 선금융 후발주 하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라고 그래서 한도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하게 되면 파이낸싱을 해 준다 이런 의향서도 발급을 하고 그런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출과 자본 수출이 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조폐공사 사장님, 아까 윤호중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사실은 일회용컵 회수 관련한 정책은 전 정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 전 정부 정책을 뒤집기하면서 폐기하면서 나왔던 사실은 정부의 책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일회용컵 회수를 결정을 했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6개월 연장하고 그러면서 제주와 세종에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또 폐기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맞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조폐공사는 해당 업체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1차적으로는 조폐공사와 저희한테 발주한 COSMO한테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조폐공사와 해당 업체 간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폐공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정책이 폐기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폐기된 겁니다, 시범실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율로 실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폐기됐지요. 그리고 그에 들어간 여러 시설비 부분들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했고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조폐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마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처럼 지금 답변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지난번에 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COSMO라고 저희한테 발주한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영진 위원** 저는 그 계약 당사자인 조폐공사가 계약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최소한 조정된 부분이라면 저는 정부기관이 책임성 있게 그것을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요, 그 말씀에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지금 소송에, COSMO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COSMO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연이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하시는 것은 저성장 속 저물가가 정책 목표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아까 정부가 98년, 2009년 그리고 2020년 사태 이후로 가장 최저 성장, 1.4%의 성장 속에 저물가로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가를 안정시킨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에서 1.4%라고 하는 저성장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의 기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선순환적 발전을 진행하여야 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총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작년의 1.4% 성장률은 전 세계의 저성장을 봤을 때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막 파급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물가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판단의 차이지요. 적정한 성장에 물가를 잡는 경우도 꽤 많았고 그렇게 정부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저는 판단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한국은행 총재와.

그래서 한국은행의 차입 문제도 정부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입세출의 추계를 잘못해서 56조의 세수결손이, 세수 평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 문제 해결책을 47조의 예산을 불용하면서 사실은 해결한 거예요. 폭력적으로 해결한 거지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재정정책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인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라고 한다면 가계, 기업, 정부에 그 어려움을 분명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잘못 추계했고 47조를 불

용 처리하면서 사실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저성장에 기여를 정부가 한 거지요. 기획도 잘못했고 계획도 잘못했고 집행도 잘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불용 처리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형태로 결과론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총재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장을 위주로 정책을 운영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운영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총재님께서는 저성장 저물가를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 우선적으로 된 것이 바람직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이창용 총재님, 한은이 주요 경제지표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수출입·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도에는 2년 연속 총 58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총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기업 설비투자 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 통합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17년, 18년에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에는 4차, 21년에는 2차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2년간 관리재정수지는 총 한 101조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대기업·부자 감세 등으로 22년도와 23년은 관리재정수지가 총 101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의 관리물가 기준으로 안정이 됐지만 윤 정부 출범 초기인 22년부터 5.1%, 23년 3.6%, 24년에는 2% 중후반대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연평균 기준을 보면 21년까지 2% 이하의 안정적인 정책금리를 유지했지만 윤 정부 들어 물가상승에 따라 최근 3.5%대의 금리가 18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외환보유액이 늘어서 4년간 19%, 739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외환보유액이 감소해서 올해 6월 4122억 원으로 총 11%, 509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98만 5000 사업자가 폐업을 해서 13.8%로 약 11만 926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반사업자는 22년 대비 23년도에 14.1%로 6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고 간이사업자도 22년 대비 23년도에 18.2%, 4만 8000명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재님, 지난 7년간의 경제 관련 주요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위원님 보여 주신 자료는 그대로 데이터를 잘 보여 주신 거고요.

○**임광현 위원** 한덕수 총리께서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 물려받을 때 경제 보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또 혹자는 윤비어천가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재님 입장이 난처하실까 봐 차마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앞에 PPT에서 봤듯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급등, 자영업자 폐업자 급등 등 이런 지표들이 모두 윤 정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와 같은 코로나 국면에서 여섯 차례 추경 편성으로 증가했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만 가지고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고 평가를 한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겸허한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외환시장 개장 시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 선진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외환시장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신 거지요.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같이 판단됩니다만 연장 시간대 환전 수요나 외환 거래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평균 10조 정도 규모, 10빌리언(billion) 정도 규모에서 지금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전체 몇 % 정도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제가 확인은…… 이전 뒤로, 3시 뒤로 한 것이 한 2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100억 달러 돌파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야간 시간대 환율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런던지부에도 사람을 보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일주일밖에 안 돼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용주 재정정보원장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중에 열린재정이라고 있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열린재정은 저희 디브레인 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들을 모아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다. 재정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하기 위한 취지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예.

○**이종욱 위원** 그 전부터 조금 문제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한 후에도, 물론 예전 시스템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활용도 문제에서는 아직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저희 나름대로, 과거 시스템에는 중앙정부만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지방정부하고 교육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공개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과거 한 9만 명 안팎에서 최근에는 연간 한 17만 명 정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보 공개, 정보를 가져가시는 것도 과거 한 100만 건에서 지금 한 110만 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국민들이 재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는 저희 회사에서 재정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재정교육을 특허나 e나라도움, 보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재정 활용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좋은 그런 콘텐츠를 알기 쉽게 많이 제공하시고요.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로 늘렸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저희 경남 지역 방산기업들의 고민이 폴란드 방산 2차 수출과 관련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차 계약을 맺은 정부 이후에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차 계약이 1차 계약보다 전체 규모는 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1차 계약처럼 통으로 안 하고 지금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 개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파이낸싱은 저희 수출입은행이 아니라 국제 상업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체결하게 된,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저희하고 무보가 분담해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 금융 때문에 2차 계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보도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일인 제공 신용공여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게 40%로 걸려 있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나중에 자료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한국은행 총재님, 금리 관련해서요. 이를 뒤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우선 중장기적으로나 금년 연말로 가면서 금리는 하향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럴 것으로 크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총재님이 말씀도 하시고 생각이 있으셔야지 내일모레 것은 모른다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이것도 예측을 안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금통위 끝난 뒤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국회에서 아무리 질문해도 그렇게 다 금통위 끝난 뒤에 말하겠다…… 국회에서 뭐 하러 질의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뚝연 기간 중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아니, 내일모레 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 추세로 가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전문가들도 다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회피성으로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기간이 언제나에 따라서……

○**정일영 위원** 아니, 중장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기간, 연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여러……

○**정일영 위원**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취약계층 금리 부담 줄이기 위해서, 부채 있는 분들 금리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내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여러 의견을 듣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무슨……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쨌든 내리는 추세로 간다고 여러 군데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 플러스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계부채 아닙니까?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총재님이 좀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얼버무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하러 해요, 업무보고?

여기 나와 있는 PF 이것 다들 지금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PF? 여기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끝에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써 놓으셨잖

아요, 부채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자료를 정확히 내시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든지. 국민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폭등 걱정하고 부동산 폭등되면 경제 활성화 또 안 되고 악순환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의 한 축이 금리 아니에요, 금리? 금융, 통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총재님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국회에서 하루 종일 이것 하는데 총재님 앉으셔 가지고 교과서적인 답변 ‘내일 모레 금통위 끝나면 얘기하겠다’, 그러면 국회는 뭡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통위 때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누가 금통위 결과를 묻는 거예요? 총재님이,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총재님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금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통화량은 어떻게 생각하고 물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집값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수출입은행장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정일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중소·중견기업 경영 애로’ 나와 있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정일영 위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으로 해서 정책자금 1년에 얼마나 쓰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지금 올해 계획은 32조고요.

○**정일영 위원** 32조 계획하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 경영 상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애로…… 좀 어렵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줄었지요, 2023년에 거의 35조가 32조로? 왜 줄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이게 줄인 게 아니고요 실적…… 2023년에도 계획은 34조가 아니라 더 적었는데 수요 초과로 인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것 다시 챙겨서 자료 주시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지역기업 지원도 제가 받아 보니까 서울로 너무 편중돼 있어요. 45% 이상이 다 서울로 나가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4.3%, 3.4, 4.4 이것밖에 안 되고, 서울로 편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수도권도 가야 되고 인천도 더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 거라서 본사를 기준으로……

○**정일영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서울만 서울공화국, 다 서울입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지방도……

○정일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절차가,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신청시기도 연초에 집중돼 있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것 파악할 인력, 대응·신청할 인력도 부족하고, 담보를 전부 제공하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우대조건 해 가지고 하는데, ESG 고용 이런 우대조건 제시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저희는 담보대출 비율이 아주, 제일 적은 은행입니다. 거의 신용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의 목소리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담보대출이 몇 %인지.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최은석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님 부임하신 이후로 통화정책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는 구조적 개혁에 대한 중요성 늘 많이 말씀해 주시고, 관련돼서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한국은행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브로드한 질문 하나 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시장의 거시경제의 성과 같은 측면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이 거시경제 전체 시스템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좀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아마 자본시장의, 어떤 선진적인 자본시장 그런 데 있어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그게 이제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측면도 있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회수 같은 것도 되게 용이하기도 하고 한 자본시장 전반적인 시스템이 대개 우리 거시경제까지도 죽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좀 하고 있는데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선진 자본시장을 위해서 밸류업 정책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들 이런 데 대해서 총재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럽과 미국이 코로나 뒤에 성장세가 굉장히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한 요인으로 유럽은 은행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을 못 하고 산업 구조를 금방 못 전환시키는 데 반해서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돼 있어서 리스크도 많이 테이크하고 산업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밸류업과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부동산 중심으로만 지금 우리 자금이 많이 앤더레이션(allocation)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으로 가 있는 돈이 산업 쪽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은행을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자본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 없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도 금융위랑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제도개선과 함께 점차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국, 전체적으로 과거의 글로벌 분업체계 이런 것들이 많이 와해되고 자국 중심주의로 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통화스와프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어려움들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재님 견해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이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노력하시는 거나 준비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융 차원에서는 저희가 여러 정부와 협력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리쇼어링이나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 변화는 저희가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미래에 볼 때 중요한 기회이면서도 위기 요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지형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큰 변화가……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서플라이 체인 변화는 굉장히 유의를 하고 계속 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주제로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총재님, 올 초에……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논의가 됐지만 돌봄서비스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언해 주시는 게, 실은 말하기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공론화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언 의미로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 관련돼서 총재님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모두가, 공론화의 장에 올려야 될 것들,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생각들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많은 정책이 그리고 많은 부서가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균형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소비자 중심의 견해를—이해당사자가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저희가 제시함으로써 좀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황명선 위원** 얼마 전에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던데요. 맞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보았습니다.

○**황명선 위원** 윤 행장께서 지난해 초에 ‘수출입은행은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외교부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서울에 있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행장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서 그런 뜻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1단계·2단계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단계는 갔고 2단계는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명선 위원** 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황명선 위원** 2단계에 포함돼 있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희가 2단계에는, 그러니까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은 다 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2단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러니까 1단계에 포함되어서 옮기지 않은 나머지 기관들은……

○**황명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아, 빼져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들어가 있지 않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수은의 근본적인 가장 큰 취지는 외교부와 관련되어 수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계획도 있지도 않고?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황명선 위원** 그래서 은행의 그 본질적인 목적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지요? 부산으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부산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 그리고 이후의 계획에 따라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이런 국가에서 국가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행장님 말씀대로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수도권에 없는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행장님 말씀처럼 이 목적과 취지대로 그 직원들과 그리고 국가의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갈등하지 않도록 잘,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황명선 위원**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앞서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한국은행의 총재로서 말에 대한 신중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거에 대통령께서 농산물의 현장에 가서 대파 한 다발을 잡고 ‘이게 한 850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대파 한 다발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의 가격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내용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컸지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럽고 농민들의 가슴에 아주 그냥 괴명이 드는 그런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 하나에 얼마냐’ 해서, 1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외국에서 바나나 같은 것 수입 좀 하지’ 이 얘기 했다가 또 농민들한테 아주 굉장히 큰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농산물 가격이 높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외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을 수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논문을 발표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한테는 듣기 어렵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러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좋은지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방안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확하게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누가 위너가 되고 누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명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는데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 자체는 굉장히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물론 유통구조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고요.

○**황명선 위원**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면 과일의 경우에 수입이 완전 금지된 품목과 수입이 된 품목과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수입을 개방하자는 것은 완전히 많이 개방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채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전적으로 수입을 개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명선 위원** 대통령께서 농산물 가격이 사과 하나가 1만 원 이상 됐을 때 바나나도 외국처럼 다양하게 수입을 해서, 농산물을 수입으로 대체하라 해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잖아요.

○**위원장 송언석** 정리 좀 해 주시지요.

○**황명선 위원** 결국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는 실질적으로 유통구조의 개선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래서 통화신용정책의 주체인 한국은행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창용 총재님, 우리가 2008년에 국내 감독체계를 개편할 때 주로 영국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한 게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형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 체계로 재편한 이후에 정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통합형인 금융청을 해체하고 영란은행 산하의 건전성 감독기구하고 독립기구인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다시 양분하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영란은행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은행 산하의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채택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총재께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각 나라마다, 저희가 영란은행 체제를 보고 그때 시도를 했습니다만 꼭 영란은행 말고도 미국 체제, 유럽 체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모델을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은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은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은행 부문에 있어 가지고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은행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큰 문제가, 지금 조사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협력 체제나 저희가 얻는 자료나 이런 것이 비은행 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 의견이 그러시다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승호 사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요 다른 나라 국부펀드하고 비교했을 때 KIC 같은 경우에는 대체 투자 비율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15%p 정도 많이 올라 있는데, 다른 국부펀드들에 비해서……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최근의 증가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해외의 상업시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고금리 장기화 여파도 있고 약간 리모트 워크(remote work)가 일상화되는 면도 있고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충분히 세우고 계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기존에 투자가 돼 있는 것들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상업용 부동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레지デン셜(residential)이라든가 인더스트리얼(industrial)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사실 KIC가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해외 부동산 실사하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까? 주로 외부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사 통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지금 저희 본사에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이 11명이 있고요 뉴욕지사에 3명이 있고 런던에 2명, 싱가포르에 3명 등등이 있어서 현지의 직원들과 저희 본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직접 현장을 다 실사를 합니다.

○**천하람 위원** 주요 자산은 직접 벤류에이션하고 실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까요.

사실 요즘 방산 쪽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법정자본금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있게 할 만한 그런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사실 지금 방산이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저희가 방산에 굉장히 많이 익스포저(exposure)가 있는, 여전 잔액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저희 전체의 6% 이내, 5.7%입니다. 그래서 타 산업 대비 높지 않고 오히려 선박이나 건설 플랜트, 전기전자 이런 데가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이런 수주산업, 미래성장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이런 것들,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서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요즘 첨단 제조 안에 포함된 방산 증감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혹시 다른 산업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잘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성장과 통화량 그리고 재정지출의 총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총량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재정지출의 총량뿐만이 아니고 총량이 같아도 재정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기여도가 확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께 기재부장관님께 IMF 보고서를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어제 기재부장관님은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그때 IMF에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IMF가 그 보고서를 낼 때까지 저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준의 원칙들을 몇 가지 어겨야 되는, 관례를 어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

트리를 다운 이펙트(trickle down effect)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건 케이스마다 다른데 과거에 생각한 것보다는 적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상위 20%, 하위 20% 비교하면서 상위 20% 인컴(income)이 1% 증가할 때 5년 동안 GDP 기여도 마이너스, 하위 20% 인컴이 1% 증가할 때 기여도 플러스, 그러니까 재정지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 기여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Benefits do not trickle down’이라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환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재님, 혹시 컴퓨터 언제 제일 처음에 쓰셨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1984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때 컴퓨터 얼마 정도 했지요, 사실 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기억이, 미국서 500불 정도 준 것 같은데요.

○**김영환 위원** 저는 90년도, 91년도에 부팅하는 데 한참 시간 걸리는 컴퓨터를 한 300만 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은 100만 원만 해도요, 일단 가격(P)도 낮아졌고 질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P도 낮아졌고 우리가 그 질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측정되지 않은 물가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물가라는 게 일단 일차적인 것들이 어려울 겁니다, 자영업자, 서민들. 그렇지요? 의료품, 식료품, 지금 거기는 물가가 되게 높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바스켓 굿(basket goods)이, 예를 들면 컴퓨터, 자동차 주로 이런 바스켓 굿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자들에게는 기술의 혁신, 그 질까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라는 게 보통 P로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질도 상당히 숨어 있어요. 그 속에는 인류 역사의 기술적 진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층마다 물가를 느끼는 바스켓이 다르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바스켓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명목성장률로 표현을 하자면, 실질성장률로 보자면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 질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1%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이루었고 아프리카 국가 중의 하나가 실질경제성장률 1%를 올렸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과 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기술 진보는 생필품의 가격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성장과 기술 진보가 저소득국의 웰페어(welfare)를 더 올려서, 저희들이 PPP라고 해서 메저(measure)하거든요. 그래서 캡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것은 또 논쟁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되게 아규(argue)가 많았고요 이 바스켓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적 진보의 효과성을 누가 누리느냐, 누가 주로 누리느냐 이런 것도 차이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 요지는, 저는 한국은행의 물가정책에 좀 따뜻함이 존재해야 된다. 이미 있는 제도라면…… 아까 중개대출 제도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돈은 따뜻함이 없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제도는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제도고, 그것도 저는 현장 은행에서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는 중개대출 제도 한도를 꼭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출도 이제는 항목이 중요하고, 또 저희 한국은행도 여러 논의 중에서도 금중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재님, 한은에서 ‘중장기 심층연구’ 등 보고서를 계속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보고서이고 인사이트풀(insightful)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이런 좋은 페이퍼도 있었고요,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국내 파급 영향’ 등등 좋은 보고서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중의 하나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작년 12월에 내 주신 보고서입니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이것 어떤 내용인지 혹시 총재님 읽으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저희 보고서가 OECD 국가들의 지출 항목들을 보면서, 여러 제도적인 차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OECD 대비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비교한 분석입니다.

○**박수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읽어 보니까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로 돼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각 지역에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되고 또 수도권은 경쟁압력이 엄청 심해지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결혼 안 하고 점점 더 아이 안 낳고 해서 초저출산으로 간

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의 부산으로 이전 이 문제도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런 지역 발전을 통해서 경쟁압력과 불안 이것이 수도권에서도 해소돼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균형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지역화폐에 관해서 한은에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금 여러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지사로 계실 때 만들었던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에 관한 보고서는 ‘지역화폐,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크다. 경제에 미치는 선영향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조세재정연구원, 총리실 밑에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것 전혀 효과 없다. 이것은 현금을 대체하는 것뿐이고 효과가 있다면 5~20%를 정부가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정 지원한 거랑 동일한 효과밖에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조사 방법이 설문조사를 해요. 상인들한테 문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상인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살 걸 지역화폐로 대체했다고 보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면 경기연구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로 샀으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의 매출액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정말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역에 매출이 늘었느냐, 순매출이 늘었느냐를 보고 이게 현금으로 그냥 쓸 걸 대체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매출이 늘지 않았다, 오로지 정부 지원금을 준 효과밖에 없는데 그 효과는 차라리 직접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역화폐라는 중간 회사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 낫다. 중간 회사가 대부분의 마진을 다 먹고 실질적인 효과는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작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보고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내 오신 한국은행에서 이 지역화폐 문제를 본격적으로 천착을 해 주셔서 정말 중립적이고 좋은 보고서를 내 주시면 우리 사회의 논쟁 하나를 끝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연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 두 보고서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두 보고서 한번 챙겨 가지고, 경기연구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 두 보고서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께서 시간을 좀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은행 총재께 한 가지, 지난 21대 기재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으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2020년 6월 달에 연구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위원장 송언석** 인천e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그것이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 됐는데 그때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지역 내에, 역내에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 있었고 사실상 카드 사용 금액은 줄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소비가 유입되는 효과도 없었다. 오히려 인천의 역내에 있는 분들이 역외로 나가서 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고려해서 한번 연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코멘트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오늘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에 질의가 많았는데요. 그 부대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때 한국은행한테 와서, 저희가 안에서 금통위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3년 부대조건하고 2024년 부대조건은 내용이 달라졌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변경이 됐는데 그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부대조건 나에 보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평균 차입일 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변경하셨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게 기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 달라는 것이 지난 국회의 요구였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취지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 의지를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변경 내용인데, 실제로 2023년에 보니까요 일시차입이 64회가 있었고 누계가 56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64회라는 걸 월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월 5.3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4년 들어와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45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치면 약 7.5회, 지금 현재 6월 달 까지 누계는 9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보면, 실제로 일하는 날을 20일로 잡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기재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해 간 거

예요.

이게 기조적인 것 아닌가요? 물론 표현은 ‘차입일수와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주 하는 게 기조적인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한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게 차이가 나면…… 유동성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짧게 갚느냐에 따라서 기조적이라고 보느냐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기조적인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한국은행에 가 가지고 기재부가 돈을 빌려 오는 상황인데 이게 기조적이라고 봐야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만기를 짧게 하면 수수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이 부대조건까지 더 강화해 가지고 가능한 일시차입을 좀 줄여 보려고 그 의지를 부대조건에 명시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횟수도 늘어나고 누계액도 벌써 91조를 돌파하고. 잘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의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결과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두고 싶고요.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에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치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정태호 위원** 이것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건데 국내외 운용사 자산운용 위탁 현황을 보면 국내 운용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10억 불 정도 수준이고 해외 운용사는 174개, 613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운용사가 약 60배 정도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 정도를 국내 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운용사 숫자를 작년 6개에서 10개로 늘린 부분은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의 설치 목적이 금융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1.6% 정도밖에 운용 위탁을, 국내 운용사에 맡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제 생각에는 국내 운용사들의 역량이 점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운용사들이 위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의지를 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희망하신 위원님들께 답변 포함해서 3분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수출입은행장님, 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공급망안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정일영 위원** 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게 출범이 8월 예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예, 8월부터 기금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논쟁이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것 듣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문제없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희 공급망안정화기금 중에서 핵심광물 다변화한다든가 물류 인프라 확충하는 것은 보조금 해당 소지가 없는 분야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경쟁력 있는 금리로 하더라도 보조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단지 하나 일부 보조금……

○**정일영 위원** 하여튼 그것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급망안정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광물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이걸 차질 없이 하셔야 되는데 WTO가 문제를 삼으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재부하고 같이, 같이하시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공급망 안정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투자공사 사장님, 제가 아까 대체자산 수익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걸 보면 좀 부실하게 왔어요. 제가 얘기한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사모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수익률이 -6.42%, 부동산·인프라도 2023년에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주요 펀드,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다, 부동산·인프라다, 어느 나라의 어느 펀드가 얼마큼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 2022년에 -6.42, 이게 꽤 큰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때 금리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 운용할 때 전통자산 수익률이 3.72%고 대체자산이 8.63%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78%예요. 그렇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익률이 높은 대체자산이 포트폴리오 상

에서 더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부펀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 운용하는 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고도화하고 대체자산을 좀 늘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간격이 꽤 있어요, 꽤 있어.

그래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고도화하고 대체자산을 얼마큼 늘려 갈 건지 자료를 추가로 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면 민간위원하고 임원들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기재부장관이 있고 한국은행 총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참여하십니까, 이 회의에?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직접 참여는 안 하십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대참으로 보통 1급들이 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대참이면 바꿔야지 이렇게 다 넣어 놓고서 대참만 계속하면 됩니까?

총재님, 안 그래요? 한국은행 총재님, 안 가시려면 바꿔야지, 부총재나 누구 담당자로.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최근 3년간 회의록하고 참석자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 중요한 회의인데 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름만 있고 대참하고 다른 분들이 다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을 바꿔야지. 그렇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승호** 아무튼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출하십시오.

총재님도 가능하면 참석하셔야지요.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관행적으로 대참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관행이, 대참시키는 관행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바꾸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자로 있을 때 추가발언 신청하는 위원님들이 참 알미웠는데 오늘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 질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도 일시차입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2020년도에 일시차입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 당시 일시차입이 102조, 그런데 그다음 해 2021년도는 7.6조로 많이 줄었고요.

총재님, 2020년도는 코로나 국가비상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일시차입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174조, 2021년도에는 180.5조가 됐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일시차입을 비롯한 은행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까 총재님께서 일시차입과 또 재정증권 발행 비교하시면서 단기간인 경우에는 일시차입의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재님, 그리고 아까 전에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보고서 발간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계셨는데 혹시 그 보고서 한번 다 읽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읽어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이 됐을 때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나라 내국인, 우리 국민들의 임금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혹시 그 보고서에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독일의 경우에 과거 건설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건설업체 노동자들이……

○**차규근 위원** 그렇습니다. 독일의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임금의 하방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재님, 경제통이시지 사회학자는 아니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민정책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연구보고서나 그런 것 보실 때 그런 부분

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지금 현재 평균 소득의 60~70%가 드는 돌봄 비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이고 돌봄서비스에 들어갈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돌봄서비스에 일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은 이게 나쁜 뉴스고요. 반면에 소비자의 경우에 또 이걸.....

지금 저희들이 돌봄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서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달리 해결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촉발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2차 보충질의로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마지막 질의 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출입은행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을 수출하거나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때 위낙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라서 해당 국에서 파이낸싱, 금융을 조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나라 금융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물수출과 함께 자본이 수출되는, 저희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수출까지 하게 되는 이중의 축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저희가 파이낸싱 해서 금리 수요를 얻는 것을 자본수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박수민 위원**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부터 진행된 파이낸싱 더하기 실물 복합수출의 패키지인데요. 아주 간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할부금융을 제공해서 자동차도 팔고 캐피털사도 돈을 벌고 이런 이중의 장치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해서 마치 우리가 돈을 꿔 줘서 억지로 판 것처럼 그렇게 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방산도 계속 장기 수출을 해야 하고 원전도 한국 르네상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때 또 한국 금융이 역할을 해야 되고 수출입은행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해서 미리미리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전문가 간담회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축복스러운 수출을 해 놓고도 또 곤해를 받는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되면 국익에 좋지 않고 국민들께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제고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한국재정정보원과 통계정보원 두 분께 공통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분, 재정정보원과 통계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나 자료로 될지 안 될지 제가 자신은 없는데 관련 기관으로 정부 내에 이런 IT 정보인프라를 구축한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정보원이 있고 또 국세청 인프라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정부

내의 정보인프라들을 연합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아니면 최소한 업데이트된 상태로 소득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개인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전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얘기들이 하도 자주 나오니까 소득계층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스터디를 하셔서 상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한국통계정보원장직무대행 김인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통계청에서도 국세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를 수집해서 실제 통계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그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은 총재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정부 측에서는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장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경제지표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민생경기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고 물가도 아까 사과를 대표적인 사례로 했습니다마는 생활물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은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혹시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우리 경제구조나 산업구조가 최근에 와서 변화가 있었는지 산업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출이 잘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기계류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한 분야하고 다른 분야가 약간 분절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리적인, 감각적인 차이, 해석의 차이 그런 문제인 건지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의 OECD 국가나 이런 나라들에도 나타나는 공통된 경제현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는 당국에서 정리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서 발표를 하든지 하면 기재위에서의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 직접 한은에서 수행하든지 아니면 정부기관하고 코워크(co-work)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위원님 말씀 한번 서로 상의해 보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7개 기관의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에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기획협력국장 김태경
금융안정국장 장정수
금융결제국장 이한녕
법규제도실장 백무열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윤희성
전무이사 안종혁
상임이사 황기연
중소증권기업금융본부장 신유근

한국조폐공사

사장 성창훈
감사 김범진
부사장겸기획이사 목진관
ICT이사 한성민
관리이사 이한빈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승호
 감사 조광식
 경영관리부문장 이상민
 투자운용부문장 이훈
 투자관리부문장 정호석
 증권운용본부장 신용선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박용주
 부원장 이용안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장 김명자
 경영기획실장 연훈수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김일권
 FTA총괄본부장 최재관
 연구기획실장 송경은

한국통계정보원
 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사업본부장 김희중
 기술연구센터장 이혁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4)

이상 4건 7월 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7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